

억대 연봉·수당 인상...市 산하기관 ‘흥청망청 돈잔치’

인천시의회 행감 자료

일부 기관장 급여 시장보다 고액 사회복지 분야는 삭감·해고 위기

인천시 산하기관 급여 현황

구분	직급	급여
인천테크노파크	대표	1억6458만원 (전년비 1288만원↑) *업무추진비 1163만원 추가
인천신용보증재단	실장급 직원	2억3471만원 (인천시장 연봉 두배) *1억 이상 급여자 30여명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대표	1억3739만원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전액 삭감	

인천시의 일부 산하기관들이 전례없는 재정 난에도 수당을 올렸거나,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장은 유정복 인천시장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와 자원봉사센터 등 상대적인 ‘약자’들은 올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24일 인천시의 각 기관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의 대표는 올해 계약연봉 1억1500만원과 성과급 958만원을 합해 1억2458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합하면 총액은 1억6458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총액 1억5200만원에 비해 1258만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봉은 1억2362만원으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업무추진비가 1163만원 늘어 총액을 크게 키웠다.

인천TP는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질책을 받았다. 사기진작비 명목으로 6559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홍철(새·남동 5)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깎이면서 임금이 줄어 난리도 아니다. 스스로 반성해야 하지 않나”라며 “연봉도 너무 많다. 상황이 상환인데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라고 호되게 질책했다.

안영수(새·강화) 의원은 “시의회는 재정난 때문에 의정비를 동결했다”라며 “인천TP도 배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천TP 관계자는 “의원님들 말씀 잘 알겠다. 명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는 인천TP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실장급 직원에게 본봉으로만 1억1735만원을 줬다. 본봉 외 1억663만원, 수당 108만원, 성과급 964

만원을 더하면 총액은 무려 2억3471만원에 달한다. 유정복 시장 연봉 1억873만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총액 기준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인물은 30여명이 넘는다. 이마저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액수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대표도 연봉 9000만원, 보직수당 1560만원, 성과급 779만원, 업무추진비 2400만원 등 1억3739만원을 받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최고 연봉은 9285만원 수준이었다. 인천문화재단도 대표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관 관계자는 “고액처럼 보이지만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이만한 돈을 줘야 한다”라고 답했다.

산하 기관들이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사이

사회복지시설 등 상대적인 약자들은 임금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시가 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3억17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라며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일부 자원봉사센터는 인력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지난 10월29일부터 인천시청 주변에서 민생 복지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의연대 사무국장은 “재정이 어렵다며 민생복지예산을 깎아놓고 산하 기관들은 잔치를 벌이는 꼴”이라며 “복지예산이 복원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시 조직개편안 수정가결

‘경제부시장’ 정무기능 회복...‘도시관리국’ 내년까지 한시지구

시의회 내일 최종 확정

민선 6기 인천시 조직개편이 가까스로 활로를 찾았다. 인천시의회가 정무부시장 기능회복 등을 조건으로 조직개편 조례를 처리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수정가결됐다.

시의회는 수정안은 크게 정무 기능의 회복과 도시재생국 명칭 변경 및 한시조직에 조건을 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당초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항목에 앞서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 여론 수렴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1번 항목으로 추가했다.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바뀌면서 정무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가 새로 설치한 도시재생국을 ‘도시관리국’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또 부칙상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내년 12월31일로 하되, 정부가 시 조직을 늘리도록 승인하면 곧바로 상시기구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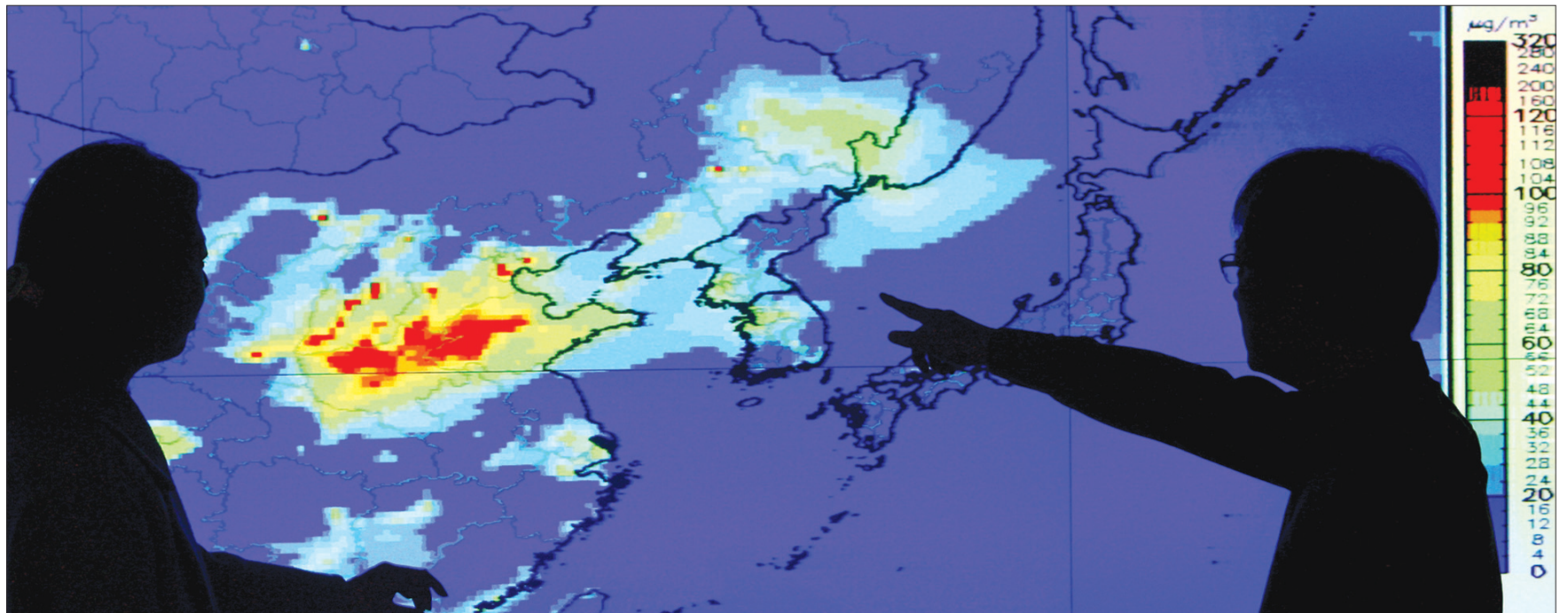
시의회는 또 ‘업무담당 부시장’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경제부시장과 행정부시장 중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도 시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중 남동부·북부 수도사업소를 이전하려던 것을 ‘일부 이전’으로 제한했다. 이는 사업소 통합이전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의회 기획위는 지난 13일 해당 조례안을 모두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차준택 기획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며 정무 기능이 사라졌고 도시재생국의 한시기구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이날 이후부터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크게 ▲정무부시장→경제부시장 전환 ▲투자유치단·재정기획단 등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겨울철 중국내 난방수요가 급증해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추적·조사하기 위해 24일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연일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a@incheonilbo.com

“中불법조업 피해대책 세워라”

서해 5도 대책위, 내일 대규모 해상 상경시위 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를 호소하는 서해 5도 어민의 원성이 쏠려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안에 피해 대책이 빠져 있다며 대규모 해상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선박 150여척을 끌고 해상 상경 시위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백령·대청·소청도의 모든 배를 모아서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여의도로 향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시위에 나서는 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배에는 생업을 포기한 어민과 가족들도 동승할 것이다. 바닷길이 막히면 여객선을 통해 상경 시위를 이어가고, 국회 천막농성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지난 12일 1차 상경 시위를 통해 시정 앞 기자회견, 새누리당 중앙당

사 방문, 문화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조업 단속과 경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들어 백령·대청 어장에서 500~700여척씩 대규모 선단을 이룬 중국어선의 ‘씩쓸이’ 불법조업이 극심해지면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

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대형 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꾸려진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조업을 막겠다는 것이

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한참 모자랐다. 대책위는 “정부는 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원칙적 수준의 대책을 내놓았을 뿐 어민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어구 손실과 어획고 보상, 성어기 조업구역 완화, 야간조업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picoNet
Ubiquitous World

줄줄 새는 전력 뷰로덱이 지켜보고 있다!

**낭비전력!
대기전력!**

이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딱! 딱! 뷰로덱이 잡아 드립니다.

실시간 전력측정 및 모니터링 기능
마이크로를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을 알려주는 독특한 기능

대기전력 차단 기능
양극차단 개폐소자를 적용, 전기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을 완벽히 차단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 UP

IR리모콘 ON/OFF 제어기능
IR센서를 통해 어떤 리모콘으로도 ON/OFF 제어가 가능한 편리한 기능

자동절전기능
PC의 화면 보호기와 연동하여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ON/OFF, 절전에 따른 불편함 NO

원격제어기능
사무실의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에 관리자가 원격으로 일괄/그룹단위 원격 ON/OFF 가능

저탄소 인공지능 제품 뷰로덱!
전기에너지 10~30% 절약!
전기제품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세요!

인간과 자연, 에너지가 함께 +되는 기업

주식회사 피코스넷

Tel : (031) 216-1764-5 Fax : (031) 216-17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702호

장애인AG 청년서포터즈 ‘무리한 모집’

충원 인원 5000명 중 하루 평균 80명만 응원 ‘혈세 낭비’ 빈축

5000명이 뿔쳐 40억원 혈세를 쓰겠다는 ‘청년서포터즈’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때 하루 평균 80명밖에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인원 1092명 중 70%는 개·폐막식 참가자였다.

인천시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때 청년서포터즈가 모두 1092명이 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회기간인 지난 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5일간 응원활동에는 392명이 참가했다. 응원은 하루에 딱 1개 종목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19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휠체어농구에 80명, 20일 송림체육관의 좌식배구 때는 71명, 21일 선학체육관의 휠체어농구 72명, 22일 선학체육관 휠체어농구

비 67명, 23일 문학박대환수영장 102명이다. 이마저도 참가자가 누적돼 실상은 경기 시간 때 20~30명 내외의 응원인력만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청년서포터즈가 대학교 시험기간으로 90%이상 대학생으로 구성돼 다수의 참가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을 달았다.

연 초 모집 때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다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된 셈이다.

장애인대회는 가족이나 시민 관심이 저조해 경기장이 텅빈만큼 청년서포터즈의 응원전이 절실했지만 기대일 뿐이었다.

특히 개·폐막식에는 각각 200명, 500

명이 참여했다고 분석한 만큼 이마저도 실행성이 다소 떨어진다.

청년서포터즈를 관장한 국제교류재단 내 글로벌사업실이 지난 10월 5기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예산을 9000만원 세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사업실은 기획·연출료 340만원, 외부장식 3010만원, 시스템운영비 3530만원, 인력비용 370만원, 제작물 480만원, 인쇄비 700만원, 구입·대여 1300만원, 대관비 230만원, 제작비 210만원 등 수료식을 위해 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산출했다. 지난 4월12일 출정식 때 집행한 1억원과 비슷한 예산 내역으로 보인다.

시는 시 안팎에서 제기된 청년서포터

즈 방안 운영 등의 비판과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수료식 예산을 조정했고, 다시 불요불급한 재원을 빼고 2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5기 보고회와 수료식에는 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글로벌사업실이 “처음 청년서포터즈를 모집 할 때 우수 참가자에 대해 해외 여행을 약속한 만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보류’ 결정 내렸다.

시 관계자는 “청년서포터즈에 대해서 시 재정 압박을 이유로 성과보고회 예산을 줄였고 해외 여행 또한 최근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u96@incheonilbo.com

인천 정체성 찾기

조우성의 인천에서 시작한 최초의 역사

16 양관

인천 제물포가 개항된 것은 1883년이다. 그에 따라 지금의 남구 관교동에 있던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가 설치 5백여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개항장으로 정해진 제물포(지금의 중구 내동)에 현 시청 격인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라는 이름의 새로운 관청이 들어섰다.

인천감리서는 과거 도호부가 수행해 왔던 지방행정 기능 이외에 외국 선박의 입출항, 해관(海關·세관) 사무, 출입국 업무 등을 맡아 보았는데, 이 같은 관아의 확장과 이전은 지역사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두드러졌던 대목은 ‘근대(近代)’와의 접촉이었다.



세창양행 사택과 개항 초기의 제물포. 응봉산 정상에 세창양행 사택이 보인다.

무역상사의 한국명이 ‘세창(世昌)’이었는데, 지사장 있었던 예두아르트 마이어가 직원들의 사택을 각국공원(各國公園) 정상에 세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었다. 벽돌 건물이었는 데 그 모습이 근사했다고 한다.

서양식 건물 시초 ‘세창양행 사택’

근거없는 ‘복원 주장’ 빈축 사기도

인천도호부 시절, 인천의 인구는 1만여명이 안 되었고, 주업은 농사였으며 향교와 서당이 유일한 교육 기관으로서 기능하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개항장이 된 제물포에서의 사회적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

등대지기, 호텔 종업원, 우체부, 전화 교환수, 성냥공장 여공, 부두노동자 등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식 일자리가 생겨나는가 하면, 지금의 중구청 일대 언덕바지에 서양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첫 건물은 현 맥아더 동상 인근에 있었던 ‘세창양행’ 사택이었다.

독일 함부르크가 본사인 ‘마이어

한용 신대법 박사가 유저 ‘인천한 세기’에서 “건평 170평이 넘는 화사한 크림색 건물이었다. 사각형 망루, 아치형 네모 기둥, 빨간 기와가 미적 효과를 돋보이게 했다.”고 소개한 그 건물이다. 광복 직후 인천시립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6·25전쟁 때 함포에 회진되었다.

그간 우리 손으로 부순 근대 건축 유산만 해도 존스톤 별장, 러시아영사관, 대불호텔 등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이제 와 별 근거도 없이 ‘복원’을 하자는 선부론 주장을 한다. 문화적 수치다. 남아 있는 건물이라도 잘 보존하는 것이 오늘 할 일이라고 본다.

/조우성 주필

인천대 ‘2회 모의 유엔 총회’ 열어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과장 이용화 교수)는 24일 오후 송도캠퍼스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제2회 모의 유엔 총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최성을 인천대 총장, 조아오 리베이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장, 변주영 인천시 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시작으로 28명의 학생들이 실제 유엔 총회를 하듯이 의장, 부의장, 대한민국, 미국, 브라질, 케냐, 중국, 독일,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국가 대표단, 사무국 등 역할을 분담해 ‘국제 상거래법의 조화를 통한 2015 유엔 새천년개발 목표 기여’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항공안전기술원 영종도에 들어서

인천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세워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지난 22일 발효됨에 따라 24일 영종도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센터가 정부 출연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곳에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민간 항공기·부품·항행시설·공항시설 등에 대한 성능 시험, 안전 인증, 결함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기술개발을 벌인다. 항공 사고 예방에 고난한 인증 시험과 연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원은 22명이고 3분부 체제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leeju96@incheonilbo.com

“세월호 분향소 폐쇄 정부에 맡기겠다”

희생자 유가족 “운영 부담 감안...합동영결식 엄수 요청”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은 인천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를 언제 폐쇄할지를 정부 결정에 맡기겠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 후 많은 국민께서 애도해하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제 일반인 유가족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국가 세금으로 분향소의 지

속적 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데 유족이 뜻을 모았다”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영혼이나 마 위로해 드리고자 합동영결식 엄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는 인천과 경기도 안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청 미래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단원고 학생·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희

생자 43명 중 38명의 영정이 안치돼 있다. 정부합동분향소가 안산 외에 인천에도 마련된 것은 환강 여행을 떠난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생 희생자가 일반인 희생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분향소를 운영해 왔지만, 최근 예산이 바닥나 추가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분향소 철수 시점과 합동영결식 엄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전국 최초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자·제어 등 첨단기술 접목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인천교통정보센터가 1991년 개장 이후 축적한 방대한 교통자료(빅데이터)를 활용, 2016년까지 교통시설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빅데이터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2단계 스마트 교통제어시스템과 지능형주차안내 시스템 구축, 3단계로 인천 중심 육·해·공 광역교통망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2단계 사업비 19억원은 국비와 시비로 이미 확보했고 3단계 사업비는 내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정 시점의 교통량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교통정보 서비스, 공공주차장 주차 가능 알림 서비스 등 더욱 충실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u96@incheonilbo.com

인천일보 구독신청

032-4520-127



화림국제의료센터

(외국인전용병원)

화림요양병원 화림전문요양원 한·양방협진병원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후유증, 희귀난치병, 신경통, 노인질환

임 원회 요양병원
신재시고 요양병원
저동치시고 요양병원
노인장기 요양병원
노인 전문 요양원
한·양방물리치료재활치료
한방 침, 뜸, 부항(약침, 특수치료)

입원문의 (032)751-8370, 837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00-1(인천국제공항신도시) www.whalimmd.com

그림같은 숲속의집!

인천 물림병이

전품목 포장가능!

산에는 해죽썰

- 이구찜
- 이구탕
- 해물찜
- 낙지덮밥
- 맨땅의의뽕밥
- 롤메기탕
- 돈까스

마직도 뽕헛중에 가십니까? 쾌적한 환경, 넓고 편리한 주차공간!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겨 보세요!

주차100대 가능/족구장 완비
단체예약 환영

032) 433-92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95-3

레일바이크 월미은하레일 대안사업 변경 → 소형 모노레일

민간업체 190억 들여 18개월 공사계획...기술·자금 동원력 의문

시의회 인천교통공 행감

예산 낭비의 상징인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모노레일에서 레일바이크로, 이번에는 소형 모노레일까지 정책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일부 인천시의원들은 민간사업자의 자금 동원력이나 기술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주로 월미은하레일 정상화 방안 등에 집중 질의했다.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사업 조기 정상화 방안 검토’라는 문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 은하레일 개선’과 ‘안전한 모노레일 재설치’가 아닌 활용사업(대안사업)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확정했던 레일바이크가 아닌 소형 모노레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형 모노레일은 민간사업자가 190억 원을 투자해 18개월간 시설 개선 공사를 벌인 뒤 8명이 타는 모노레일 3대(총원 24명)를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속도는 기존 모노레일 40km/h보다 낮은 15km/h이며, 총 70대의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레일바이크가 전동과 페달로 운행했다면, 소형 모노레일은 페달 기능이 빠진 채 자동으로 운행한다.

교통공사가 정책 방향을 확정한 셈이

지만, 여전히 사업은 오리무중이다. 사업을 벌일 민간사업자에게 자금 동원력과 기술력이 있는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도형(민·계양 1)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의 자본금이 적고 신용평가 등급도 낮은 편인데 200억원짜리 사업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도 따져보면 모노레일 전문 업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업체가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홍철 교통공사 사장은 “각정되는 바가 있다. 안된다고 예단은 못하지만 협상을 거쳐야 한다”라며 “해당 업체가 은행에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자고 제

안했지만 거절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교통공사는 사업 정상화 보고서에 ‘사업자 사업추진 능력 검증 필요’, ‘금융기관 대출 확약서 제출이 관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업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은하레일 사업은 지난 2009년 준공 이후로 5년간 정체돼 있다. 오 사장은 이날 “올해 안으로는 결판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레일바이크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모노레일을 만든다니 제2의 은하레일 사태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유 시장, 사회복지 높은 관심

24일 인천시청 앞 한식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각종 사회복지 관련 현안을 청취한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상은 ‘국내용 귀족학교’

정원 3467명 중 369명 재학·외국인 20%뿐...고액 입학금에 일부 재정서류 요구도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소수 귀족학교’라는 논총을 받고 있다. 정원의 10%밖에 채우지 못했고, 80%가 국내 학생이다. 매년 10억 넘게 형세가 각 학교에 투입되지만 등록금은 연 2만달러에 달한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인천글로벌운영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글로벌 운영재단이 학생 모집에 등한시하며, 외국인이 입학하지 않는 등 ‘글로벌’이 아닌 ‘국내용’이란 지적을 이어갔다.

오홍철(세, 남동 5) 시의원은 “인천글

로벌캠퍼스에 입주한 4개 대학 중 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원과 이미지도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며 “글로벌 대학을 유치한 만큼 외국인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정원 3467명 중 현재 369명만이 다니고 있다. 이중 국내 학생이 295명이고 외국인은 고작 74명이다.

4년제를 기준으로 하면 개교 2년차인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정원 807명 중 400명 다녀야 하지만 현원은 228명이고,

올해 문을 연 조지메이슨대는 760명 중 한학년 190명에서 67명을 선발했다. 겐트대는 정원 900명 중 1학년 225명 모집 인원 중 53명을 채웠고, 유타대는 정원 1000명 중 250명이 모집돼야 맞지만 19명만이 수업을 받고 있다. 겐트대 외국 학생은 3명, 유타대는 7명이었다.

이들 대학 입학금은 한국 대학의 2배가 넘는다. 한국뉴욕주립대는 2만1590달러, 조지메이슨대·유타대 2만달러, 겐트대 2000만원이다. 심지어 한국뉴욕주립대는 입학전형에 입학원서와 영어성적

표 외에 ‘재정관련서류’까지 요구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한 학생만 뽑겠다는 의도가 비춰진다.

정창일(새, 연수 1) 시의원은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심이 높은 학과가 설치돼야 한다”며 “학생이 저조한 것이 이 때문이냐”고 물었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의 본교에서 담당한다”며 “학과와 대학유치는 전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AG 운영 미숙 비판에도 포상은 주겠다는 인천시

내달 공무원·시민 등 표창...내년에 정부도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포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놴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성과급 잔치’에 이어 ‘포상 잔치’가 벌어지는 판국이 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다음달 초까지 공무원 187명, 시민 115명, 유관기관 및 단체 34곳 등에게 표창장 302장, 감사패 34개를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오는 26일까지 추천을 거쳐 다음달 초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하반기에도 정부가 포상을 준다. 공무원 100명, 시민 100명, 유관기관 및 단체 20곳 등이 대상이다. 정부 포상은 훈·포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체부장관상 등의 다양한 훈격에 따라 수여된다. 포상 규모는 내년 정부 계획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있다.

올해와 내년을 거치면 총 552개의 포상이 나온다. 포상을 받는 공무원은 총

28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상의 근거는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시 포상업무 운영지침 등이다. 대회조직위와 장애인대회 조직위도 각각 60명, 40명을 표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표창을 줄 예정이다. 표창은 보통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때, 징계수위를 낮추는 용도로 쓰인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후원사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 직원에게 나눠주고,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실상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불렀다. 성화가 꺼지는 등 대회 운영상 문제가 많았는데도 직원에게 수백만원 규모의 보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표창 계획도 비슷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물론 대회 운영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있으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시 공무원들은 파견근무를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부평미군기지에 신개념 시민공원 조성

역사성 살린 녹지공간 계획...2017년 설계용역 추진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는 부평미군부대가 오는 2016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 해당 부지에 시민 공원을 조성하는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기지 일원(42만8985㎡)을 인천의 대표 도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개발방향을 역사성·지속성·친환경성에 두고 인천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미군부대에 남아 있는 땅굴과 건물 등을 활용, 생태연못과 역사자료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역사 가치가 있는 필수 건물을 제외한 구역에는 도심 숲을 조성, 시민이 자연 속으로 다가가갈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일제 강점기 군수품 제조공장으로 사용된 조병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부대내 토지구획이나 공간배치 등을 최대한 살려 시간의 흐름과 역사성을 담아낼 계

획이다.

시는 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와 보상비 61.93억원, 공사비 107.2억원 등 총 726.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로·하천·공원국유지 매입비용의 70%는 국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공원 조성 사업비 확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 산림청과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미군부대 이전 뒤인 2017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평미군기지는 총 44만㎡ 규모로 기지 내 군수품재활용센터(DMRO)는 2011년 7월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부대는 2016년 말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도로 단절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DRMO 부지(8만8187㎡)를 먼저 반환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평가와 치유 범위를 둘러싼 미군과의 이견 때문에 조기 반환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부동산 사고 팔 때 전문자격사에게

부동산 매물검색은 한국부동산거래소에서

중개업소 방문하실 때 협회 공제마크를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사이트 “한국부동산거래소”에 방문하면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ren.or.kr **NAVER** 한국부동산거래소 검색 **d2m** 한국부동산거래소

공제가입, 개설등록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로 문의하세요.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인천 남구 주안로 86, 601외주안동, 우신주안빌딩 TEL:032)875-6321, FAX:032)875-8731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를 쳐주세요!

대한공인중개사

032-578-4585
010-5352-2777

1. 공장매매	2. 임대공장(창고)	3. 기 타
① 위치 A급, 3급정비공장 대지70평, 건물38평 매매가 7억 2천 (현재임대료 보7,000/월450만) 연간임대수익률 7.2%	① 동구 송림동 1층 100 사무실 10평 동력60KW, 호이스트 2.8톤 높이(최저5.1M~7M) 보증금 2,500만/월 250만	① 상업지역 여인숙 (현재영업중) 객실 13개 / 주민주거가능 2015년 지하철거통 예정지역(역세권) 매매가 1억9천
② 강화 송해면 대지500평 건물70평 창고60평 높이 6M 계획관리지역 (급매가 4억5천) 공장, 창고, 공방, 작업실, 2층주거로사용가 <공장등록가능> 트레일러 진입가능, 강화 관청리 5분거리	② 계양구 창고(공장) - 70평형 : 출입구2개소, 높이5M 5톤차량 실내 진입가능, 주차면적확보 - 30평형 높이5M 프레스 가능	② 송림동 대로변 상업지역 나대지매도 24평 (가건물있음)
③ 서구 오류동 공장 대지620평 건물 180평 급매가 15억 용도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③ 서구 대형창고 대지 4,500평 건물 2,000평, 사무실300평높이11M, 교통편리 대형차진출입 용이 보증금 10억 / 월 7,300만	③ 박촌동 자연녹지 대로변코너 도로점 850평, 450평 (화원, 아작장가능)
④ 철재상가 (40평형) 높이10M, 호이스트 2.8톤 매매가 3억2천	④ 서구 가좌동 1층 50평 2층 20평 호이스트 2.8톤 높이9M 보증금 1,800만/월180만	④ 시흥시 신천동 상가주택 2억7천만원 (2016년 지하철거통 인근지역) 대지37평 1층21평, 2층20평 (지하별도)
⑤ 대지 70평 1층50평 2층20평 높이9M, 호이스트 5톤설치 동력50KW 매매가 4억5천만	⑤ 상가 및 소형제조가능 공구상가 20평 사무실별도 5평 동력 20KW	단독(상가)주택급매 5억5천 송의동수봉공원인근,준주거지역 제물포역 도보 8분거리 대지 71평 내부도로코너 정사각형) 1층 : 34평 (제조, 건설, 동력10 KW) 2층 : 38평 (주택34평, 제조 4평) 3층 : 38평 (주택) 옥상사용가/주차6대/건축년도2010년 <각층별 임대가능함>
⑥ 아파트형공장 실평수94평 & 62평 / 매매가4억5천만원(임대수익 8%이상)	⑥ 김포시 대곶면 공장 매매가 6억5천 대지340평 /1층공장 110평/ 2층사무실 20평/ 3층공장 110평 대형차진입, 호이스트, 높이 6M	추천용도 주택,소형공장,각층대리점,창고,제조시설

정의화 국회의장-여야 원내지도부 '예산안 처리' 연설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의정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왼쪽)이 24일 국회 의정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호 양보” ... 법정시한내 해결 간곡 주문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각각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기한보다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정 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과 먼저 회동에 나선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합의를 해야 한다”며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 처리가 옳은 길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지 않고 일방 처리되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합의 처리로 12월9일까지 되면 법

정 “협상 속 헌정 66년사 새 이정표 만들어야” 與 “기일준수” 野 “합의중요”...입장차이 극명

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합의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여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에 정 의장은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이 12월2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마친 뒤 곧바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이 원내대표에게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12월2일 (처리

돼) 헌법을 지키는, 헌정 66년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서로 양보와 배려를 하면서 합의가 잘 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살다가 어길 수도 있는 거지만 헌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내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전통을 세우되 가능하면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합의된 속에서 전통이 수립되면 더 빛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전통을 세웠으면 좋겠다”면서 “헌법과 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의장님 뜻을 받들어 잘 하겠다”고 답했다.

회동 후 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에 있는 원칙을 (정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새정치 연합의 12월9일 처리 방침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까지 국회의 좌지우지했으면서 헌법에까지 규정된 예산안 통과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키는지 문제와 관련 “법적 해석으로 볼 때 지방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정 의장은 “한 번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여야 개별발의 북한인권법 국회 외통위, 2건 일괄상정

25일 대체토론·27일 소위원회 일정
법안 연내처리·심사진행 신속추진

국회 외교통일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제정안인 북한인권법안은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조속 처리를 위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하고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안은 연내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 법안

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외통위는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대북전단발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안 상정을 두고 야권에선 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누리과정 이전차... 오늘 재논의

여야 '우회지원 검토' 담판 협상 타결 불발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24일 절충점 찾기에 나섰지만 시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25일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 예결위 차원의 우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타결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여야는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담판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9일 여야 교문위 간사들과 잠정 합의한 대로 5600억 원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문제를 번복하며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 기본적인 의견을 서로 간에 교환하고 논의했다”면서 “내일 오전 양당 수석과 교문위 전문위원이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특별회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세부적 논의가 필요해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해 내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25일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오는 28일부터 상임위 논의를 토대로 교육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포함한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지역위원장 선정 계파 나누지 않아 기본적 도덕·리더십 기준으로 선출”

윤관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위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24일 지역위원장 선정 당시 계파 안배와 관련, “계파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라며 “앞으로 활동력을 점검받아서 높은 경쟁력과 지지도를 가진 후보, 20대 총선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면 다시 경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력 강화에 집중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통합 당시 5대 5의 통합정신과 관련해서는, “공식화 한 적 없다. 당시 지방선

거에서의 당면과제 등을 위해 힘을 모아 돌파하자는 취지였다”면서 “당시 공동대표를 하고 최고위원회를 5대 5로 구성했지만 이후 모든 것에 대해 5대 5를 하면 지분 나눠먹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배려와 존중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그(안철수)쪽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 공장·창고, 나대지 상가 임대매매접수받습니다 ☆
B2B공인중개사사무소
비투비공인중개사사무소 전속물건 공개매각
비투비와 함께하는 고객님의 물건을 공개 매각 합니다.

1. 인천 중구 향동7가 93-10번지 7050.6㎡(구2,133평) 현 철강회사
2.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0-4,5번지 전체 23,730㎡(구7,178평) 1,322.3㎡(구400평)이상 분할매각
3. 인천 중구 향동7가 65-45번지 198.2㎡(구60평)
4. 인천 서구 오류동 810번지 외 3필지 5,584㎡(구1,690평)
5. 인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186-3번지 4,295㎡(구1,299평) 공장허가, 토목공사완료.
6. 경기도 화성시 화리현리554, 265-2,6번지 계획관리 4,492㎡(구1,358평) 공장, 창고 로 가능
7.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0-11번지 근린상업용지 1,858㎡(구562평)
8.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227번지 4,959㎡(구1,500평)
9.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번지 상가건물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22-3번지 10,962㎡(구3,316평)공장허가, 토목공사완료.

이외 기타 다수의 물건보유 매매,임대 매물접수 환영.

1. 인천 서구 심곡동 대로변 13,980㎡(구4,229평) 추천
2. 인천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해안도로부지 평수다양 추천
3. 인천 중구 향동7가 63,324.4㎡ (19,155.6평) 추천

문의전화 : 032-859-89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05-4번지 대표공인중개사 김중윤

매매

1. 빌딩 매매
인천 연수구 중심상업지역 (연수역 앞)
대지 : 516.1㎡(구156평)
건평 : 396.94㎡(구120평)
연면적 : 2866.33㎡(구867평)
지하2층, 지상5층 (2014년2월7일 준공)
(추후 9층 증축 예정)
매매가 58억원

2. 토지 매매
인천 강화군 건평리(해안 인접)
3,410㎡(구1,032평) 각 분할 가능
건축물 2동 건립, “허가 필”
제 2중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매매가 19억 6천만원

지평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88번길
대표 : 032)582-8585

현대건강원

농장직영

각종엑기스 가공 및 건강식품판매

○ 흑역소, 홍삼, 장어, 배
○ 붕어, 돼지감자, 도라지, 칩
○ 포도, 호박, 다슬기

※국가유공자 우대
※업체 지인분들 선물용으로 최고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02-8번길 1층

TEL : (032)467-5855
FAX : (032)473-0904
H·P : 010-4824-6197



인천 내항 ‘사업장 재배치 - 부두 통합’ 오리무중

인천 내항 사업장 재배치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내항 재개발을 위한 부두운영사 통합 방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24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구성이 확정된 내항 운영협의회 첫 회의를 이번 주 내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 확정을 놓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내항 운영협의회는 IPA 운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인천항만청, IPA, 10개 내항 부두운영사, 회계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항 운영협의회는 내항재개발 대책을 최종 확정하게 될 전방이지만 구성 합

운영사 고용보장·방안 등 불만 쏟아내

후속논의 전무...구체적 방식 확정못해

이번주 운영협의회 첫 회의 진행키로

의에 이어 운영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청과 IPA가 지난 10월 14일 내항 부두운영사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부두통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설명회 당시 운영사 통합 추진 배경에 이어 통합방안, 일정, 상용근로자 고용보

장 방안 등을 놓고 업계가 불만을 쏟아냈지만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부두통합 방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초 계획안대로 내항 부두 기능 전환에 따른 선석 및 야적장 재배치로 가닥을

잡을 지 부두운영사를 통합할지 등도 사실 확정되지 않았다.

부두운영사 통합도 갈 길이 멀다. 단일 운영사 통합에 대한 난항이 예상되면서 화종별 부두통합도 솔솔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작 내항 운영사 통합 관련 인센티브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부두운영사 사이에서 거센 만큼 업계가 먼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뾰족한 대안도 없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부두운영사와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상이 쏟아졌지만 인천항은 이런 혜택도 누리기도

어렵게 됐다.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항 부두운영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초 계획대로라면 내항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두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항 부두운영사 별로 통합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부두운영을 포기하려는 업체들도 있어 향후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며 “내항재개발에 따른 대책 협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incheonilbo.com

에어버스社 A380 운항

대한항공 최우수 영예

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사가 주관하는 ‘A380 기술 심포지엄’에서 A380항공기 최우수 운항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A380은 ‘하늘을 나는 호텔’로 불리는 초대형 항공기다.

2012년 12월 수상한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

에어버스는 2년마다 자사가 생산한 기종에 대해 비행시간과 횟수 등을 고려한 운항 정시율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운항 항공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한항공의 A380 항공기 운항 정시율은 99.8%로 세계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애틀랜타, 프랑스 파리 등 4개 노선에서 A380 항공기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10월 인천항 수출 전년비 20.9% 늘었다

19억8100만달러 실적...수입 56억만달러 15.3% 증가

10월 인천항 수출입이 각각 증가했다.

24일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19억81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9% 늘었다.

품목별로는 화공약품(231%), 기계류(9.5%), 자동차(3.9%) 등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전기·전자기기(-13.2%), 철강(-14%) 품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일본(73.7%), 미국(36%), 중국(26.2%), EU(18.9%), 아세안(17%), 중남미(10.7%) 등의 수출이 늘고 중동(-19.6%)으로 수출은 줄었다.

수입실적도 56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전자·기계류(25.3%), 철강·금속(0.6%), 유류(32.6%), 농수축산물(18.0%)은 늘었지만 목재펠트(-12.1%), 곡물류(-0.8%) 등은 줄었다.

10월 중 무역수지는 36억8200만 달러 적자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동월대비 4억700만 달러 12% 증가했다.

국가별 적자는 중국이 17억27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아세안 7억6300만 달러, 중동 5억1600만 달러 적자 등으로 집계됐다.

/이은경 기자 lott@incheonilbo.com



인천공항공사가 그린카고허브(Green Cargo Hub) 5차 사업으로 친환경 소재로 만든 항공화물 포장용 비닐을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외항사를 대상으로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친환경 포장비닐 보급...녹색물류 앞장

인천공항, 취항 외항사 대상 구매비용 절반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녹색 물류시대 구현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광분해성 항공화물 포장비닐’ 보급 사업이 항공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비닐에 비해 가격이 높아 상용화가 쉽지 않은 친환경 항공화물 포장비닐의 구매비용 절반을 인천공항공사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그린카고 허브(Green Cargo Hub) 5차 사업으로 국내 최초 친환경 소재로 만든 항공화물 포장 비닐을 인천공항 취항 외항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매 비용 절반 가량 정도다.

이번에 보급되는 특수 포장 비닐은

기존 포장용 비닐에 자외선 안정제와 광분해 활성제를 첨가한 것이 특징이다.

내구성은 기존 비닐 장점을 유지하면서 태양광선을 자외선으로 자연 분해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포장비닐의 경우 도양 매립 때 16년 이상 경과해도 분해되지 않고 남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면, 광분해성 비닐은 자외선과 산소에 노출되면 1년 기간 내에 95% 이상 분해되는 이점이 있다.

항공화물 포장 비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루 약 14t, 연간 5110t이 사용되지만 포장비닐 특성상 재사용이 어려워 대부분 1회 사용 후 전량 폐기

된다.

인천공항공사 임병기 복합사업개발처장은 “앞으로도 공항 운영 전반에 친환경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연 친화적인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세계 공항의 녹색 바람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항공화물 분야의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그린카고허브 사업으로 경량형 항공화물 컨테이너, 생분해성 항공화물 포장 비닐을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2만800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에어부산 ‘더여행 출사단’ 모집

에어부산이 오는 30일까지 일본 여행 출사단 10명을 모집한다. 일본 관광청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당일치기로 여행하며 두 도시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맛있는 먹거리 등을 사진으로 남기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제공=에어부산

그린포트 인천항 노하우 전수

IPA, 친환경에너지 심포지엄 참석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국립 인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회 아시아환경에너지 심포지엄 및 그린포트·클린에어 컨퍼런스’에서 이규용 건설본부장이 친환경 항만을 지향하는 인천항의 노하우와 비전을 성공적으로 전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네팔대사와 유엔 에스캡(UN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사무소 대표를 비롯해 16개국 대표자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IPA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특별 기조 연설을 통해 ▲인천항 그린포트 구축 현황과 미래 그린 전략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 및 발전방향 ▲인천항 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아시아환경에너지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에 대한 범 아시아권 대응이라는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됐다. IPA는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인천만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녹색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인받고, 아시아권 개도국의 녹색항만 개발사업 참여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경 기자 lott@incheonilbo.com

www.conel.co.kr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 120320-중-27506호

남성 확대 - 비수술적 주사 시술인 저장진피 분말을 이용한 주입술로

저장진피 분말을 이용한 주입술,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에 지장 거의 주지 않아 더욱 효과적

음경확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술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음경확대시술은 나날이 발전되어 최근에는 간편한 약물 확대시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코넬비뇨기과는 FDA의 승인을 받은 원재료인 저장진피 분말을 공급받아 남성 확대 주사시술에 사용하고 있다.

이 저장진피는 진피조직을 미분화시켜 파우더 형태로 가공하였으며, 순수진피 함유량이 380mg/cc 정도로 화학합성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며, 따라서 이식후 조직의 과사, 염증작용을 유발하는 화학합성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Collagen과 Elasti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세로 동종진피조직을 사용하여 시술전 별도의 알러지 테스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음경확대에 있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주저했던 사람들이나, 음경 왜소로 확대를 원하셨던 분, 음경이 변형되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 시술을 간편하게 받을 수가 있는 적당한 시술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진피 분말을 이용한 주사 주입술은 미세입자로 이루어져 뭉치는 현상 감소, 디테일한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전문의를게 시술을 받는 것이 좋고, 자연스럽게 확대되어야 기능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시술 후 일상 생활들이 가능하고 시술 후 비교적 치료과정이 간편하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일부 염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정석

코넬비뇨기과의원

☎032-423-8270

인천롯데백화점 뒤편

NAVER

코넬비뇨기과

를 쳐보세요



홍륜사 정도원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품격 봉안시설을 자랑하는
홍륜사 정도원 봉안당!!

- ◆ 신뢰할 수 있는 운영과 관리
- ◆ 홍륜사와 영구히 존재
- ◆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 ◆ 가까운 곳, 편리한 교통

☎ 이(개)장 관련, 장례/화장 절차에서
안치/봉안까지 24시간 상담 가능!!



24시간
상담문의

(032)834-1131/832-1131

www.jungtownon.co.kr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06-12

도서정가제 시행 ... ‘제2 단통법’ 될라

지역 서점가 “책값 상승 불가피 손님·매출 줄어” ...회의론 제기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있어 인천지역 서점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지난 21일 전면 시행되고 나서 책을 사려는 손길이 평소보다 줄었다는 얘기가 지역 서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책값의 거품을 빼 중소서점과 출판업계를 살린다는 취지로 마련된 개정 도서정가제를 놓고 정작 중소서점들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책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 심지어 도서정가제를 ‘단통법’에 비유해 책 소비를 줄이

도서정가제 어떻게 바꿨나		
구분	개정전 도서정가제	현행 도서정가제 (11월21일 이후)
대상 범위	모든도서(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모든도서(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적용 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재정가)
할인 범위	정가의 10%(가격할인)+ 판매가의 10%(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가격할인+간접할인) (단, 가격하인은 10% 이내로 제한)
적용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서점 매출도 하락 분위기다.

인천 부평구의 한 서점 주인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는 말에 21일 전에는 손님이 좀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20% 정도 줄었다”며 “사실

신간 중심으로 판매하는 동네 서점들은 도서정가제로 인한 가격 상승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데,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가 책 값을 올린다고 생각해 찾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불었

던 책 사재기 현상 때문에 당분간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서점 종업원은 “소비자들이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 책 사놓느라 바빴으니 앞으로 손님 주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베스트셀러나 신간도서를 선호하기보다 값싼 서적을 원하는 이들 중에는 중고서점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회사원 최현우(34)씨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련 지출 적지 않아 할인폭이 큰 구간을 많이 사서 보는데, 바뀐 도서정가제에 대해 무제한 할인이 없어지는 바람에 온라인 중고 서점을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다산신도시 자금지구 택지공급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금지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대상은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로 전체 6개 블록 35만7238㎡ 규모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총 475만㎡의 신도시급 규모에 구리-도농-호평의 동서발전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신도시를 잇는 남북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공급일정은 12월8일 신청접수 및 추첨이 진행되며, 12월11일부터 계약체결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는 다산자금지구와 다산진건지구의 통합브랜드 도시로, 남양주시 자금동, 도농동 일대에 수용인구 약 8만5000명, 세대수 3만세대로 조성된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겨울철 감기예방 ‘손 씻기부터’

2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에서 어린이가 물티슈로 손을 씻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삼무물티슈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겨울철 손 씻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전했다. /연합뉴스

“가족·연인과 특별한 겨울 보내세요”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
내년 2월말까지 ‘윈터 패키지’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가 겨울 시즌을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윈터 패키지는 1일 숙박 시 2인까지 조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별 제작된 담요와 텀블러 세트를 한 객실 당 제공하게 된다. 또 호텔 19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수라채 다이닝’에서 텀블러를 사용해 커피와 차를 주문할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디럭스룸과 주니어 스위트룸 숙박 고객에게는 객실 내 고급 캡슐 커피가 별도로 제공된다.

이 호텔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12월24일과 25일에 칠면조, 베이징 덕 홈메이드 햄 등 특별 메뉴의 런치와 디너를 준비할 예정이다.

윈터 패키지 가격은 수페리어룸 15만원, 디럭스룸 17만원, 주니어스위트룸 27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으로 국내 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032-250-0000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스마트워터그리드 컨퍼런스

오늘부터 송도컨벤시아 개최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은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4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물 관리 기술에 ICT 기술을 융합해 기후변화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창립총회도 동시에 열린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인천상의, 강화산단 분양 홍보 팔 걷어

“가격대비 입지조건 최상”

인천상공회의소가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강화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분위기 조성에 한창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올해 마지막으로 연 강화산단 현장설명회에 20여명의 기업인이 몰려 3만3000㎡ 이상을 상담하는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강화산단은 최근 도로포장 공사를 비롯해 수도 시설, 조정시설, 전신주가 들어서는 등 산업단지의 모습을 갖춰가며 성공적인 사업 준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산단은 강화읍 옥림리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부지조성 공사는 내년 4월 완료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을 만큼 관련 열기가 뜨겁다는 게 인천상의 측 얘기다.

3.3㎡당 95만원이라는 분양가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1월 현재 공점률은 약 65%다.

이날 현장상담회에 참석한 한 외국계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평택을 비롯한 김포, 파주 등 여러 산단을 검토한 결과, 강화산단이 가격 대비 입지 조건이 가장 좋아 보여 참석하게 됐다”며 “앞으로 강화-영종대교

가 연결되면 인천공항이나 항만이 30분 이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가치가 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소형 필지에 대한 지정 계약을 진행하는 등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강화산단은 인천상의의 역점 사업으로 평창호 공을 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강화산단을 놓고 장밋빛 미래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분양률이 기대만큼 나와지지 않는 점은 강화산단의 가장 큰 약점이다.

현재까지 입주를 확정 지은 기업은 인천의 대표 기업 가운데 한 곳인 풍산특수금속㈜를 비롯해 총 50개 업체로 분양률은 60% 수준이다. 지난 8월 분양률이 58.6%였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넘게 1%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강화산단이 값싼 분양가를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인천상의가 강화산단을 통한 이윤을 많이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이어지면 인천상의의 측면 적지 않은 손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계약률 91%

주거환경 쾌적·편의시설 풍부 ... 수요자 관심

송도국제업무단지 3공구에서 분양 중인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블록이 전 주택형 순위 내 마감한 데 이어 90% 넘는 초기 계약률을 기록했다.

24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블록 총 872가구 공급에서 초기 계약률 91%를 나타냈다.

특히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분양 완료됐고 일부 중대형 가구만 남았다.

중소형 위주 구성으로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아파트는 평균 3.5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에서 청약 마감된 바 있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는 F13-1, F14, F15블록에 총 15개 동, 총 2597가구로 구성된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형이 전체 공급물량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조감도

의 75%를 차지한다.

포스코건설 권순기 분양소장은 “송도 국제도시 핵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높은 계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F15블록 계약에 이어 25일부터는 F13-1, F14블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 모빌하우스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더샵 갤러리에 조성돼 있다.

1688-7760 /민지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현직 도의원 운영 매장 인도 불법점거 '봐주나'

안성 서인로타리 앞 대형전막·입간판등 무차별 설치
도시미관 훼손·보행시야 가려 통행 장애...특혜 의혹
취재 하자 서둘러 치워...시 "단속 등 한계...제도 예정"

현직 K도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매장이 인도를 불법점거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안성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안성

서인로타리 A핸드폰매장 앞에는 대형전막을 비롯, 에어간판, 입간판 등이 인도를 불법점거한 채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훼손은 물론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보행자

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이 절실한 곳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르면 인도·차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철거와 더불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수개월째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K도의회는 새누리당부대표,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등 중책을 맡고 있어 시가 '도의원'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핸드폰매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대형전막, 입간판 등을 치워

버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매장이 K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지 몰랐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 현재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K도의회는 "A핸드폰매장은 가족에게 넘겼다"며 "내 앞으로 돼 있는 사업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imsa@incheonilbo.com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1510세대 월말 공급

교통망 우수·쾌적한 환경

관리비도 절감 '그린 단지'

대우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인근인 한강신도시 Aa-03블록에 이달 말부터 1510세대의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조감도)'를 공급한다.

지난 6월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의 성공적 분양에 이어 공급되는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의 전용면적 59㎡ 단일평면 세대로 올해 한강신도시에 공급되는 마지막 물량이다.

2017년 5월 입주자 예정된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구래역(2018년 개통예정)과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복합환승센터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48번국도와 김포한강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전용면적 '59㎡' 단일평면

단지열 초중고 내년 개교

2018년 개통 구래역 500m

단지 건너편으로는 한강신도시 최대 규모의 중심상업지구와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내년 초 개교가 예정된 마산초, 마산중과 솔터초, 솔터고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 내 최대 사업 중 하나인 호수공원도 가까이에 있어 생활편의와 함께 쾌적한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단지 부지의 45% 이상을 조정공간으로 계획해 테마산책로와 힐링포리스트, 로망스가든, 키즈빌리지, 플라워가든&작가정원, 내 집 앞 정원, 아쿠아가든 등 다채로운 조경시설이 꾸며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대단지에 걸맞게 연면적 2635㎡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커뮤니티시설도 장점이 있다.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푸른 도서관, 독서실, 동호인실, 키즈카페, 패밀리룸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간 단지 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푸르지오의 친환경 주거상품 '그린 프리미엄'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각 세대에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센서식 싱크절수기, 풍량조절형 다분기 챔버, 친환경 DNA필터,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 LED조명 등이 들어간다.
공용부에는 엘리베이터 전력회생시스템, 친환경 물재생 시스템, 하이브리드 보안등, 조절수 양분기, 질수형 센서수전 등이 설치된다.

전세대가 소형 주택형임에도 특화설계를 적용해 평면 활용이 우수한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는 4개 주택형이 각각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라이프스타일과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견본주택은 오는 28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3-1번지일 문을 열 예정이며 3.3㎡당 평균 900만원 후반대에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1577-8942 /김포-권영호 기자 ykkwun@incheonilbo.com

“친환경 쌀 수매값 비현실적” 파주 농민들 가격인상 요구

“RPC, 일반벼 취급 부당이득”...가격 현실화 촉구

친환경 쌀의 수매가격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24일 파주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격인상을 요구했다.

파주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RPC)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벼의 수매가격을 일반벼와 큰 차이없이 수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벼수매를 주장했다.

30여명의 농민들은 1t짜리 벼포대에 담긴 벼 심역을 시청앞 인도에 쌓아 놓은뒤 파주시와 RPC관계자들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농민들은 “현재 RPC에서 정한 건조벼(40kg·7만1500원)의 수매가는 너무 적어 현재의 금액보다 5000원을 인상해야 한다”며 “RPC는 추정(아끼바레)외의 벼(일반벼, 삼강)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6만5500원에 수매가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농민들의 고향을 빨아먹는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RPC가 학교급식에 쌀을 납품하면서 농민들에게는 19만6500원을 책정하고 RPC는 추정외의 품종도 모두 추정과 동일하게 26만 원에 납품(보조금 포함), 80kg당 6만3000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RPC는 농민들에게 도정비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왕겨와 기타 부산물에 대한 수입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을 챙긴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 A씨는 “쌀수입 개방이라는 힘든 파고를 넘고 있는 농민들에게 RPC는 도요은 커녕 오히려 농민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RPC는 자신들의 뱃속을 채울 것이 아니라 수

입개방에 시름하는 농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매가를 결정하는 RPC 사외이사인 윤운철 시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석했을뿐이고 RPC 측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매가를 동결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주민과 RPC측간 대화 유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RPC는 2011년 3월 파주관내 9개 농협이 출자해 만든 파주시농협 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매년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 약 3만여t을 수매하고 있으며 현재 ‘한수위 파주쌀’이란 브랜드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글·사진·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부천시지역 수곡식점 금연

내년부터...위반엔 과태료

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해야하며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부천-이종호 기자 jhlee@incheonilbo.com



24일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지역 농민들이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벼수매 가격인상을 요구, 가져온 산물벼를 쌓아 놓고 있다.

김포 후평리 올해도 ‘재두루미 장관’

국내 최초 철새 서식 복원지...지난해 이어 관찰

김포시가 국내 최초로 시도 중인 하성면 후평리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취·서식 복원지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두루미가 관찰됐다. 큰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와 흰기러기 등의 희귀 철새들도 잇따라 관찰돼 도시화로 잠식되고 있는 마지막 남은 김포지역 철새 서식지인 흥도평야를 대신할 철새 취·서식지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두루미 6개체가 하성면 후평리 재두루미 취·서

식 복원사업지와 인접지역에서 관찰됐다.

18~19일 이들 동안에는 흰기러기 2개체와 큰고니 1개체가 사업지구내 무논지역에서 취식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다양한 철새들이 날아들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하성면 후평리 일대는 수도권 최대 재두루미 도래지로 30여년 전만 해도 매년 2000여마리의 재두루미가 월동을 마치고 북상하던 곳이다.

복원사업이 시작된 뒤 순천만과 일본 등지에서 월동을 마치고 매년 봄

북상하다 먹이를 얻기 위해 잠시 내려앉은 개체는 있었지만 월동을 위해 남하하던 재두루미가 목격되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조성 사업 이후 2012년 3월 처음으로 재두루미 10개체가 모습을 드러낸 뒤 올 봄까지 173개체의 도래가 관찰됐다”며 “재두루미 외에 쇠기러기, 큰기러기, 흑두루미,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독수리, 매 등도 관찰되고 있는데 그 개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명성을 점차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권영호 기자 ykkwun@incheonilbo.com

여주 둘째 출산장려금

새해부터 100만원으로

여주시는 출산을 저하와 인구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자녀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자녀 이상 700만원(140만원씩 5년간 지급)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30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하는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50만원이 인상된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여주-김경섭기자 askim@incheonilbo.com

지붕명가
제일지붕공사

NAVER 창에 지붕명가를 치세요

제일건축 지붕개량 전문회사

지붕명가는 포스코 컬러강판 100% 슬리브공시 전문 기업
25년 현장 시공 노하우를 가진 업계최고의 리모델링 전문회사입니다.

기존 슬라브집 지붕을 개량하면→
겨울은 따뜻! 여름은 시원!
평생 방수·누수 완전해결됩니다!

- ▶ 빌딩/아파트/빌라데스리/주택 및 슬라브집/학교/공장/관공서/상가/창고/돈축사 외
- ▶ 공장 직영으로 시공하여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초저가 비용으로 시공가능)

전화주시면 내 집처럼 공사하겠습니다.
무료전화 080-457-8282
경인지역 032-473-1004

지붕개량 ★특허★ 출원 ※ 공사금액 전액 장기분할 가능

땅 급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잡종지)1004평

비닐하우스, 화원, 농장, 창고
경명대로 LG 전자 캠퍼스 앞 대로로 진입
매매가 : 22억 (평당 220만)

물류창고 매매

인천시 서구 공촌동 (대지) 181평

- 건축물 샌드위치 판넬 2층구조
- 1층 : 98평 ● 2층 : 20평
- 창고 현재 임대중
- 경명대로 진입

매매가 : 12억 6천만

인천서구 열린부동산

TEL.(032)562-6288 / 010-2774-0500

수원역 쇼핑몰 개점 눈앞... 막판 점검

롯데몰 등 이달 중순 완공...‘현장 방문’ 염 시장 “교통·시민 안전대책 철저히”

수원시가 롯데몰 등 대규모점포들이 개점을 앞둔 수원역세권 일대에서 주변 교통상황 등에 대한 마지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1일 롯데몰 수원, AK플라자수원점, AK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역환승센터 등을 방문·점검했다.

염 시장은 이날 “수도권 남부의 최대 규모 상권이 일제히 개점하며 예상되는 차량 집중에 대비해 교통과 이동시민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란다”며 “안전의 기준을 항상 이용자 입장에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원역세권 개발의 마중표를 찍

는 수원역환승센터는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교통대책이 모두 갖춰진 것은 아니다”라며 “주차사전에약제를 충분히 홍보하고 주차요금제, 속도제한, 일방통행 등 방법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역세권은 수도권 남부 최대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며 수원 지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개발이 수원시 동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수원역환승센터 건설현장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건설되는 수원시 입체환승센터는 앞으로 각 도시 환승센

터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현대적 디자인으로 세련된 도시미를 구현하고 이용주민의 동선을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역세권에는 2012년 착공한 롯데몰수원과 AK플라자 확장, AK 노보텔 엠버서더 등 공사가 이달 중순 완공돼 각각 개점을 앞두고 있다.

롯데몰수원은 롯데백화점수원, 롯데몰수원, 롯데마트수원 등 3개의 판매시설과 8개관의 롯데시네마 등 4개 테마의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3만4000㎡ 규모로 722개 점포에 4800여명이 종사하게 된다.

AK플라자 수원점은 6만5000㎡를 중

축, 판매시설을 697개 점포로 확장하고 287실 규모의 특1급호텔을 개관했다.

수원역세권은 쇼핑에서 영화, 외식까지 한국에서 즐기도록 구성돼 수원뿐 아니라 국철1호선 및 수원분당선을 이용한 오산, 평택 지역 이용자와 2016년 개통할 수인선의 화성권 수요자들까지 불러들이며 수도권 남부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서 수원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KCC, 롯데, 애경역사 등 3개 기업과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비 분담 협상을 벌여 총공사비 610억원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성사시켰다.

/이성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출몰어르신 연탄나눔...“을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권선사라회(회장 최찬식) 주관으로 지난 20일 오목천동 출몰어르신 거주 세대에서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는 김지완 구청장, 서경보 행정지원과장, 권선사라회원 20여명 등 40여명이 직접 준비한 연탄을 출몰어르신 거주주택 창고에 쌓았으며 기부별 300장씩 총 1500장의 연탄을 다섯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신민섭 기자 msshin@incheonilbo.com·사진제공=수원 권선구

수원산업3단지 용지 12필지 분양

근린생활시설·주차장·물류시설...내달 8~10일 접수

수원시가 권선구 고색동에 조성 중인 수원산업3단지 내 지원시설·주차장·물류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 9필지, 물류시설 1필지, 주차장 용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 물류시설은 조성원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입주가능업종은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지원시설, 금융 및 후생시설, 의원 등 진료·치료시설, 음식점, 편의시설 등이며 물류시설은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이다.

분양 신청은 오는 12월8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며 용지매입신청서, 신청예약금 납부영수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분양 신청 접수 후 내달 중 분양자 선정과 계약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구비 서류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수원시 창조사업과(031-228-3357)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산업3단지는 풍부한 노동력, 편리한 기업 인프라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경유해 국도43호선과 수원 서부로를 잇는 대로 1-35호선이 개설 중에 있어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산업용지 41만㎡, 96필지가 모두 분양 완료 됐고 급속가공제품업,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 업종들이 입주하고 있다. 현재 48개 사업장이 준공돼 활발한 생산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시는 산업용지의 입주율이 높아지면서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 분양 신청자가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광교호수공원 내년 4월 개장

수원시가 애완견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교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광교호수공원 제3주차장 부근 3524㎡ 면적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는 애견놀이시설, 음수대,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형견과 중·대형견이 이용하는 공간을 분리해 애완견들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수목지대가 조성돼 있어 여름철 시민과 애완견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용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시간과 관리방안을 수립해 내년 4월 경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후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2018년까지 3곳의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신민섭 기자 msshin@incheonilbo.com



장안시민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구형 월레조희 연주, 행복찬 달팽이 초청 연주회 등 다양한 봉사연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관객들과 하나 되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장안구 여성합창단이 특별출연했다.

/신민섭 기자 msshin@incheonilbo.com·사진제공=수원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운)는 지난 23일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수원장안 시민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다. 수원장안시민오케스트라는 2014년 1월 창단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추진

시, 국비보조금 3억여원 요청...내년 상반기 위탁법인 모집

장애인 5쌍 합동결혼식

“2014년 수원시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지난 21일 수원 월드컵컨벤션센터홀에서 열렸다.

이날 결혼식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부부 5쌍이 가족 등 하객 300여명의 축하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수원시,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지역 사회기업의 후원으로 치러진 이날 결혼식에서 장애인 부부들은 후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신민섭 기자 msshin@incheonilbo.com

수원시가 아동학대예방과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수원시 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사건 발생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등 아동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져 내년 상반기 중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 법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며 내년 상반기 중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내년 7월부터 운영될 계획이

다. 수탁법인이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시는 아동보호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금 3억500만원을 지원 요청했다.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 아동학대 관계기관간의 연계 대처,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전담 치료보호시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 아동인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장안구 영화동)’이 수원,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5개 권역에 대한 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수원시가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를 분담했다.

한편 시는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 지역내 아동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심리·정서치료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학대 재발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민섭 기자 msshin@incheonilbo.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8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44354	1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18, 1층 112호 52.8	아파트	105,000,000 105,000,000	복합아파트8동1120호
2014타경 55736	1	남동구 장아산로 157, 103동 7층 702호 [서창동, 서창자이] 141.855㎡	아파트	420,000,000 420,000,000	
2014타경 58438	1	서구 경단로511번길 24, 201동 6층 608호 [이지2차미래지향아파트1단지] 84.9633㎡	아파트	225,000,000 225,000,000	
2014타경 60769	1	부평구 평천로 395, 3층 5층 504호 52.83㎡	아파트	111,000,000 111,000,000	
2014타경 62482	1	계양구까지말로2, 1가동 1층109호69.95㎡ 옥탑 2.41㎡ [정포 [가나공인중개사사무소]로이용]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2014타경 64938	1	서구 송학로495번길 7, 105동 2층 204호 경암동, 서해그랑블아파트] 84.9634㎡	아파트	290,000,000 290,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4타경 39369	1	중구 경동150-5 79.3㎡ 제시와주택49.36㎡ [제시외건물제외, 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명]	대	151,620,050 151,620,050	일괄매각, 150-1번지제시중구 개원로 96-18 43.64㎡ 제시와 주택 7.15㎡
		중구 경동 150-1 155.4㎡	대		단독주택 47분의4이종성지분전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43771	1	남구 낙성중로105번길 18, 5층 502호 [용현동, 행복한집] 46.54㎡ [부활물로판단되는 판별조판별지붕소재, 평가매각포함]	다세대	92,000,000 92,000,000	
2014타경 62263	1	계양구 새물로7번길 35, 1층 4층 401호 36.48㎡	다세대	64,000,000 64,000,000	건물외벽7층으로표기
2014타경 53723	1	서구 경서로18번길 3-1, 4층 401호 [경서동, 선경하이츠] 42.96㎡	다세대	110,000,000 110,000,000	
2014타경 59882	1	부평구 평천로317번길 12-12, 3층 301호 감산동, 우남각사빌라] 37.23㎡	다세대	81,000,000 81,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60097	1	남동구 만수동 109-388 9층 3층 302호 39.64㎡	다세대	69,000,000 69,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2014타경 61069	1	서구 새오개로111번길 16, 102동 1층 101호 [신현동, 장인하이츠빌라] 37.44㎡	다세대	71,000,000 71,000,000	
2014타경 61427	1	남동구 만수동 111-205 신화빌라 1층 101호 48.75㎡	다세대	92,000,000 92,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2014타경 61632	1	남구 소성로318번길 18-9, 3층 301호 59.82㎡	다세대	110,000,000 110,000,000	
2014타경 64532	1	남구 문학동 339-1 천우아파트 지층 비01호 34.56㎡	다세대	48,000,000 48,000,000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62666	1	중구 중산동 1830-1 16529㎡ 제시와 창고 124㎡ [소유자미상의조립건물약20평과평과 및매각제외타엔지니어1동소재]	유원지	5,330,738,000 5,330,738,000	제시와건물포함, 현황대로잡초지, 일부답으로이용
2014타경 63614	1	동구 화수동 7-188 20㎡ [매각및평가제외소유자미상무허가건물1개동소재]	대	15,000,000 15,000,000	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명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86030	1	남구 주안동 1472 1884.4㎡ 동소 1472 10-2층1호28.03㎡ 2층30.98㎡ [물건번호: 1번가및매각제외소유권다른제시외3층건물부본소재, 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명]	대	53,000,000 53,000,000	일괄매각, 목록1공유자임분570분의8.48지분전부
2014타경 57732	1	부평구 장제로 45, 1층 1층-154호 [부평동, 부평현대대도프트] 20.475㎡ 동소 1층 1층-155호 20.475㎡ 동소 1층 1층-156호 21.263㎡	근린시설	335,000,000 335,000,000	일괄매각, 음식점, 재배업상대
[기타]					
2014타경 53334	1	연수구 송도동 11-101 4600.8㎡ 동소 11-101 2층 송도연주소 나루기술회관 1층464.42㎡ 2층592.23㎡ 3층500.55㎡ 옥탑1층70.06㎡ 동소 11-101 3층 송도연주소 지하동 지하1층 2783.59㎡ [현황지하주차장으로이용중]	대	4,272,905,580 4,272,905,580	일괄매각, 목록1공유자100분의33[주부, 목록3공유자3분의1[주]나루기술회관전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① 동지법상 농지특약지적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특약지적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② 공유자가 민사합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는 공유자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초로 매각기일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2. 9.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2. 16. [토] 14:00
4. 매각장소 : 인천지방법원 입찰장 제219호
5. 매각방법
 -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약계약을 체결한 전서[일정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② 2층 이상인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지침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봉투에 투입한 금액으로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한 금액으로 입찰한 금액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추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금이란 총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② 지정된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도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증한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분지, 비록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① 소유권과 납부보증금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각종 지장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② 소유권 이전허가 및 지장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③ 입찰보증금의 내역에 대한 입찰자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지나 산본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위하여,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이전등 농지특약지적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특약지적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효하며, 다른 농지특약지적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⑤ 공고된 물건에서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 ⑥ 신청에 공고하는 물건의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함은 계산의 의 공고나 법원에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⑦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8. 주의사항
 -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최선순위와 지장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입찰인들끼리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합법[신상]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③ 특별명조서권의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방법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지나 산본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위하여,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소유권이전등 농지특약지적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특약지적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효하며, 다른 농지특약지적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⑥ 공고된 물건에서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 ⑦ 신청에 공고하는 물건의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함은 계산의 의 공고나 법원에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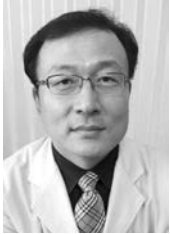
매각일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정보명보전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에 제공하여 지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바로 연락통화가 신청한 후, 대법원에서는 신속히 열람을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꼭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익

겨울철 건강 관리법

건강한 삶



윤왕수

경희나라한의원원장·한의학박사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분다. 낮과 밤의 일교차도 심하다. 바야흐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모양이다. 겨울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월동준비를 한다. 두꺼운 옷과 이불을 준비하고 김장을 하며 창문에 뽁뽁이도 붙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월동준비를 해야 한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추운 계절인데, 겨울이 되면 우리의 몸도 건조해지고 추위에 노출된다. 겨울철에 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고 익히는 것이 진정한 건강 월동준비가 아닐까.

겨울철이 되면 감기,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게 되고, 코막힘, 콧물, 재채기를 동반하는 비염도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는 호흡기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어서 발생하게 된다. 평소 옷을 든든하게 입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며, 땀을 흘리면 바로 옷을 갈아 입고, 젖은 빨래를 이용하여 방한의 습도를 높여 주는 것이 좋다. 생강차, 계피차, 모과차 등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도 건조해져서 피부질환이 많아지며, 특히 아토피가 심해지게 된다. 이런 경우, 자주 휴식을 취해주고, 하루 한 번씩 30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몸을 담그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땀을 잘 흘리지 않아서 몸안의 수분이 주로 소변으로 배출되고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어 중년이상에서는 요실금이 빈발하고, 찬 곳에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치질이나 치루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평소 환부를 자주 좌욕해 주거나 핫팩을 대주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흔히 중풍(뇌경색, 뇌출혈)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은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한번 발병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회복도 안되고, 후유증도 심하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평소 혈압 관리에 충실하고, 추울 때는 심하게 운동하는 것을 삼가고,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는 것을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목뒤가 뻣뻣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두통, 마비감이 오면 바로 병원에 가 보아야 한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추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인대와 근육이 뻣뻣해져서 관절염이 생기거나 악화되기 쉽다. 평소 가벼운 관절 운동을 하고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참된 의사는 병든 다음에 치료하지 않고, 병들기 전에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힘쓰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소통하고,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바로 의사를 찾으라는 말도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처방이 경육고와 쌍화탕이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체질, 증상, 계절에 맞는 섭생과 치료 방법을 상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환경의 창



지영일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사무국장

11월 초 인천시는 환경 분야 등 7개 분야에 걸쳐 유정복 시장 특별보좌관을 위촉했다. 치열했던 6·4지방 선거 당시부터 문화·복지를 비롯해 환경에 대한 어떠한 의지나 비전을 지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시 정부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전환점을 이룰지 지켜볼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엔 새롭게 위촉된 환경특보는 근원적인 시각에서 환경을 이해하고 지켜나 가려는 전문가로 정병이 나있는 인물이다. 글로, 강연으로 환경정책 전반과 걸포장된 환경인식에 나선 비판을 서슴치 않았던 그다. 발전과 국제화를 명분으로 강행된 개발에 대해 “농경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갯벌이 도시로 바뀐다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일갈에서 그러한 면모를 읽어내기에 충분하다.

아췌든 초대 환경특보를 중심으로 유정복 시장 정부가 풀어나갈 환경 난제가 만만치 않다. 더

인천시장과 환경특보의 역할

욱 꼬여가고 쌓여가는 모양새다. 얼마 전 한진중공업이 시흥시에 제출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서’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다리가 놓이면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올 7월 랍사습지로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고잔갯벌(송도11공구)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는 곧바로 갯벌 생태계와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로 미치게 된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일부의 개발이익과 약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려는 소담대실의 전횡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이 2016년 사용종료를 공약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아직까지 분란의 핵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유 시장의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 주도로 구성된 한 단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연장을 요구한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을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 생활안전은 물론 환경 현안으로 상당한 불편감을 주기로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대량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하는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지본부의 LNG 저장탱크 증설 등도 떠오른다.

이 문제들을 꿰뚫고 있는 핵심 맥락을 짚어보자. 지역사회를 뒤흔드는 논란들은 지역 내에서의 이해관계 차이에서 비롯한 경우는 그리 없다. 지역과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과 시민사회의 얽힌 구도가 얽힌다. 실제로 느닷없이만 배곧대교가 그렇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그렇고 기타의 환경 현안들이 그렇다.

왜 그럴까? 어느 편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이고 경제·산업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조건을 두루 갖춘 최적지라는 판단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들 내부의 갈등 사안을 전가하거나 특정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것이다. 이는 곧 진정 인천을 생각하고 시민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철저히 활용가치를 따지는 이용자의 입장이다.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으로서의 고통 분담, 편의의 공유는 겉으로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천시장과 환경특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누구인가? 인천사람이고 인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과시해야 하는 사람이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과감하게 도모해야 하고 지역과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과 시민사회가 얽힌 구도 속에서 슬기롭게 정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이들이다. 특히나 지역 이기주의, 감성적 지역주의를 거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전을 불사하고라도 지역적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근간으로서의 철학을 바로 갖고 형식적 행보가 아닌 공리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실리로, 결과로 ‘인천성(仁性)’을 드러내야 한다. 인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복으로서의 자기 충실성이 그것이다. 인천시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며 균형발전, 고통 분담, 편의의 공유 등등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엔

언제가 고교동창생 열 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니?’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10명 모두 ‘돈’이라고 대답했다. 자녀 결혼, 노후생활을 대비 해야 하는 오십대의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돈보다 건강이나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사랑이나 우정도 돈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반문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높은 이념이나 사상을 실천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무능했으면 그 나이에 버스를 타고 다녀”라고 자위하며 경로석

을 양보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과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노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감춰진 돈의 위력이 숨겨져 있다.

사랑도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생명조차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자본이라는 고상한 언어로 둔갑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때면 비애감마저 든다. 안으로는 복지예산 삭감, 밖으로는 국가간 무역협상의 최후선은 경제적 이익으로 점철되는 것만 보아도 돈의 위력이 점점 강력해

짐을 실감한다. 돈을 우리 사회의 바로미터로 여기는 풍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심지어 경제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을 무능력자내지는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하는 야구방망이를 든 자본가의 행위가 드러날 때면 가히 돈은 신(神)적 존재가 된 듯하다.

그러나 신(神)이 된 돈이여, <노아의 방주이야기>를 명심하라.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 살았던 노아가 커다란 방주를 만들자 주님의 모든 사람은 그에게 왜 그렇게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대홍수는 일어났고, 돈의 세상이 이 세상의 종착점

이라 믿는 자들이 있다면 사막 한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돈>이라는 책을 쓴 보도 새퍼는 논리적인 계산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는 자가 더 많은 돈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가고 있는 불공평한 분배는 평화와 행복을 위협한다. 돈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일 뿐이다. 돈은 이제 본연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거기로 가는 길은 어렵고 수많은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 길을 밝혀주는 하나 하나의 표지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세상은 그런 표지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돈이 신(神)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송용석 농협중앙회 청년교육원 교수

● 외교 노조는 인천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incheonilbo.com

400-034 인천광역시 중구 안동로 226(항동4가 18-1)
442-834 34번지 별당구 경5대로 507번길 5(창평동 2층 경계문사)

회장 김정섭

발행·편집인 박길상

주필 조우성

편집국장 백종환

대표전화 인천 032-4520-114 경기 031-232-2288
광고전수 032-4520-151 구독신청 032-4520-127

1988년 4월 25일 자-48호 등록 / 인천일보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0,000원/한부 500원

독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보내실 편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주소 400-03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인종로 226 인천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앞

☐팩스 763-8823 ☐전자우편 column@incheonilbo.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50687	1	동구 화수로 8-10, 204동 10층 1005호 [상·현동, 솔빛마을주공2차아파트] 59.92㎡	아파트	180,000,000	2014타경51390 [중·현동, 솔빛마을주공2차아파트] 59.92㎡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29255	1	중구 백운로527번길 17, 가동 4층 401호 [다세대/스카이빌리지1단지] 59.19㎡ [현황대]	다세대	120,000,000	동기사항전부중영
2014타경 36957	1	서구 신현동 187-3 나동 4층 402호 42.04㎡	다세대	120,000,000	상상지목단
2014타경 40505	1	계양구 양지말2길 27, 5층 502호 59.9㎡	다세대	175,000,000	통상임신라
2014타경 46718	1	서구 도요지로42번길 11, 2층 204호 [경서동, 초이스빌] 52.455㎡	다세대	142,000,000	통상임신라
2014타경 46749	1	남동구 안수동 944-10 지층1호 38.13㎡	다세대	53,000,000	통상임신라
2014타경 56784	1	부평구 이곡로95번길 19, 4층 401호 [십정동, 에밀빌라] 39.60㎡	다세대	77,000,000	통상임신라
2014타경 60240	1	남구 주안동 1588-15 영보빌리지 2동 4층 402호 40.720㎡	다세대	98,000,000	통상임신라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38175	1	연수구 연수대로 218, 6층 302동-601호 [연수동, 연수푸르지오3단지] 155.46㎡	근린시설	450,000,000	450,000,000
2014타경 45968	1	남동구 예술로 198, 2층 214호 12.408㎡ [토지5.6.7개일반도로사용하기위한지상권설정별도등기있음]	근린시설	145,000,000	145,000,000
2014타경 49779	1	계양구 주부토로532번길 43, 3층 305호 65.52㎡	근린시설	97,000,000	97,000,000
2014타경 54313	1	남구 제일로37번길 9, 비동1.2층 2호 연립	근린시설	62,000,000	1층창고등으로,2층주거용으로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임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채수신인인 매각물건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는 채수신불응공고를 발령하지 않고 이를 백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다른 우선채수신권을 한 경우 그 채수신권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가일에 채수불응공고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가일에서는 우선 채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가일에 다른 채수신권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채수신고금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2. 9. [월] 10:00

3. 매각경정가일 : 2014. 12. 16. [월] 14:00

4. 매각장소 : 인천지방법원 입찰방장 제219호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한 가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과 함께 입찰보증금 및 입찰서에 부인한다. 채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에 해당하는 공유자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공시[발행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자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투입이 종료되면 공발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채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채수신고인과 차순위채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채수신청인들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결과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물건가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채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종전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수인에게 이전되고, 각종 지료금, 가압류등은 승낙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및 지료금의 미소입금을 위해서는 통상매각 지정공고에서 납부한 후 통상매각수입확인서 및 통상매각수입확인서(지식)를 확보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상환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기능을 축약하여 준다.
- ② 매각대금을 납부한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자는 부동산 점유자가 채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료금 등이 설정된 낙찰되다 먼저 주담대출원금상환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나, 사업장특수상환을 마친 장차인의 집을 매각하는 그 장차인과 채수인이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② 일반인들의 청약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가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통상매각사본과 및 경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실(상환)과에 비치하여 청약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명확한 통상매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보증금 납입후 매각허가 결정의 기일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이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원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반환금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자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채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물건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지마을특별특수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가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철회한 채수·정지한 경우, 또는 매각가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가일에 해당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계시관의 공고나 법원에 비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수신청인이 제출한 채수신청서를 반환합니다.

매각가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행정정보서비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법부 내부 내용인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나 상업행위나 종교, 대량집회(집회)나 선취행위(선취)를 할 수 없음으로, 관상되는 불이익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내오셔서 계시관 매각가일의 공고나 비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성식



내고장의 모든 소식! 인천일보에 담겨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신선한 아침을 열기 위해 인천일보의 24시간은 멈추어 없습니다. 신문이 배달되는 순간부터 인천일보 뉴스룸은 내일을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인천일보를 통해 국내 정보는 물론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인천일보의 인기는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신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일보. 인천일보가 여러분을 보다 큰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사설

예산낭비는 절대 안 된다

인천시 남구가 구입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구청장 관용차를 고가 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해 예산낭비란 지적을 받고 있다. 남구청장이 현재의 저공해 중형 차량을 대형차로 교체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 관용차를 구입한 지 1년여가월 만에 새롭게 구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차량에 한해 교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칙을 어기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관용차의 내구연한은 통상 7년으로 보고 있으며 주행거리는 12만km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시교육감은 관용차를 대형차로 바꾸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시교육감은 당초 지금의 관용차인 2007년식 체이맨을 기동성이 높은 대형차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시 교육청 재정상황을 감안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감 이하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도 10% 감액했다.

남구와 시교육청의 처신이 크게 달라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천시의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렵다해도 반드시 써야할 것은 써

야하지만 남구의 경우 불요불급해 보이는 이유는 내부규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작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시교육감의 경우 차량교체를 포기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시교육감은 새차 구입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의 관용차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인천시는 인천AG 후유증으로 내년부터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별첨한 차를 새 차로 교환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로 보아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까지 책정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마당에.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모두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무상’은 아닌 셈이다.

지자체 자치단체장은 큰 벼슬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대표해 시민들의 ‘공복’이 돼 달라는 뜻으로 뽑아준 자리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은 그렇게 알고 처신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남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문화정책을 잘 펼치는 구로 인식돼 있다. 한 가지 실수로 전체 이미지를 망칠 필요는 없다.

비자금

스런 어려움에 처할 때 손쉽고 빠르게 쓸 수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눈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몰래 숨겨놓은 돈 때문에 생겨난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비자금의 주인공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내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느 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 그런 것 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부부는 한 이불속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돌아서면 남이 되기 때문에 손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비자금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왠지 씁쓸한 마음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물질만능의 세상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비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빠 빠지게 벌어다 주는 돈을 적당히 떼어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혹은 때려다 더 부풀려 불인 꼴이 된 셈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이실직고하고 숨겨놓았던 비자금 통장을 건네주려고 했던 생각을 일단은 접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TV

화면을 켜자마자 어느 기업의 총수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발각이 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화면이었다. 아내도 옆에서 그 장면을 보는 중이었다. 나도 모르게 흠칫 놀라서 그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얼른 꺼버렸다. 내 속을 모르는 아내는 왜 갑자기 TV를 끄느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굳이 대기업의 비자금과 비교를 한다면 코끼리와 개미나 다름없다. 사용처 또한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진쟁이가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다. 지금까지 조들리는 살림살이를 아내 혼자 책임져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다.

결국 아내를 불러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다. 나의 돌발행동에 의아해 하는 눈치였다. 나는 통장 하나를 붙속 내놓았다. 아내는 깜짝 놀랐다. 우리 살림으로는 꽤 큰돈이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다행히 늦게나마 모든 걸 홀출 털어버리고 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우아한 삶보다 마음이 편한 삶을 택한 것에 후회는 없다. 잘 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이 즐거분함은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욕심은 버릴수록 더 고귀하며 더 많이 채워진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된 셈이다.

오늘의 소사

- ▶인천상업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로 개칭 <1930>
- ▶부평우편소 부평우체국으로 승격 <1949>
- ▶미7함대 입항 이승만대통령 비래 <1953>
- ▶경서동 경인주물단지 준공 <1986>
- ▶인천시청 미국순화공연차 출국 <1988>
- ▶연수구 신청사 개청 <1999>
-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통 <1999>
- ▶제1회 이규보선생주모 서화에술대전 전시회 <2000>
- ▶개항백주년탐 완전 철거 <2003>

/자료실



인천일보 70주년 기념 특집

세상을 바라보는 눈.

동북아 대표신문

인천일보 안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032)4520-114

www.incheonilbo.com

연표로 본 인천체육사

가 떠오를 정도로 야구의 도시가 되었던 것도 인천을 통해서 야구가 시작되었고 특히 한용단에서 야구의 대중화를 이끌고 야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각인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선천(汗鮮 慎兌範 박사)께서는 만능스포츠맨이었다. 경성제대 의학부 시절에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일본과 만주 등지의 원정경기에서 활약하였고 유도, 정구, 야구에도 두각을 나타내셨다. 광복 후에는 선천을 따라 인천에서 벌어지는 야구와 정구대회를 관람했던 기억이 생생하고 테니스코트에서 경기를 하시던 선천을 보면서 내심 자랑스러운 느낌을 지녔던 기억도 난다. ▶사진과 연표로 보는 인천 체육사가 발간되었다. (조우성 지음·도서출판 푸른섬 펴냄) 1883년 인천항의 개항 이후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소개된 스포츠의 발전 등을 신본보도 및 스포츠 관련 저서와 회화를 살살이 뒤져서 만들어낸 역작이다. 그동안 <인천 이야기 100장면> <인천 문화생활 연표> 등을 펴낸 독심과 의지를 가지고 펴낸 조 우필의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건필에 큰 박수를 보낸다.

/연표인

신용석의 지구촌

(678)

우리 고장 인천은 개항 이후 서구의 신문물들을 받아들여 이를 전국 곳곳에 전파하여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해왔다. 우편, 전신, 전화, 신화폐, 최초의 군함과 성남, 염로·바늘과 같은 생활용품들도 모두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증구정 앞에 있는 개항박물관에는 인천을 통해서 최초로 실시되었거나 도입된 각종 제도와 물품들이 분야별로 전시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우뚝 선 우리나라의 각종 스포츠도 인천을 통해서 또한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FIFA 월드컵대회에 계속출전하고있는 축구도 1882년 영국군함 플라잉피시호의 수병들에 의해서 인천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 후 1897년에는 외국어학교 출신 통역관들이 인천항에 입항한 영국 함선 수병들의 축구 경기를 보고 대한축구구락부를 조직했다. ▶축구뿐 아니라 야구, 정구, 수영, 배구, 스케이트 등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인천이 1950년대부터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연승을 거듭하면서 인천하면 야구

분 실 공 고

분실주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92-1번지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106동 1404호 지문정 연락처 010-3041-2353

자본감소 공고 (주권제출 및 재권자 최고서)

당회사는 2014년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0원을 금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200,000주 중 190,000주에 대하여 금950,000,000원을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일자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14년 11월 24일

주식회사 대영인더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정로 4-7, 비동 230호

(고창동, 남동공단신입용종상가)

대표이사 김 중 호

2014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공모

- 1)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1종목 기록영상 제작
 - 인천시지정 제9호 대금장
- 1. 영상기록물**
 - 기록매체 : HD/원시
 - 제작규격 : 기록본(시간제한 없이 원형에 충실히 기록) 보관본(50분 이내)
 - 제작액 및 납품내역
 - 기록본 : HD/3명(원본1명, 복사본2명), DVD 3명, 클립본 3명
 - 보관본 : HD/3명(원본1명, 복사본2명), DVD 3명, 클립본 3명
 - 촬영및편집(Source film) 일체
 - 보관본 DVD 700장
- 2)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4년 12월 1일(월)~12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접수함.
- 3) 제출서류 문의처**
 - 시·재민간광역시무형문화재추진협의회 사무국 인천광역시 남구 패소동로 589 인천도호부청사 032)422-3492

시·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추진협의회

주택·상가·공장 신축, 증축

- 완벽시공
- 원가절감
- 하자보증

주택:평당 250~270만원
상가:평당 220~240만원
공장:평당 130~150만원

주택·상가 건축

외부및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외장마감재

내부마감:아파트형 고급내장마감

공장·창고 건축

철구조물+불연재판넬 (높은층고+공기단축+완벽방수)

☆공장 및 주택, 증축 및 보수공사☆

내부구조 변경공사, 인테리어공사, 토목공사, 외벽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德壽建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7-11

T.032)764-0518 / 휴대폰:010-5242-6533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205호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1. 임용직역(인원):** 상임이사(1명)
- 2. 임용기간:** 3년(임용일로부터)
- 3. 주요 직무내용**
 - 이사직을 보좌하여 소속 부서를 관장하고, 공단의 업무 및 경영전반에 대하여 총괄 운영·관리함.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 함.
-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겸직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하인 자(1953.11.26일 이후 출생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 공단임원인사규정시행내규 제4조, 제4조의2)
 - 1)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 5년 이상 경력소지자
 -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소지한 자
 - 3) 박사학위,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자격소지자 등
 - 4) 시설(토사)관리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미인드를 가진 자
- 5. 직무수행 요건(요구능력 수준)** (※ 공단임원인사규정 별표1외2)
 - 공공시설을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
 - 시설을 관리 및 공단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제시
 -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 주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의 강화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증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개혁성 등의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 6. 임기 및 보수:** 이사장과 계약 체결(성과연봉제)
 - 임기는 원칙적 3년
 - (단,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1년 단위 연·해임 가능)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단규정에 따름
- 7. 지원서류 접수**
 - (※ 임차위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의거 간사로 하여금 실무처리 함)
 - 접수기간: 2014. 11. 26(수) ~ 2014.12. 10(수) 09:00~18: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E-mail(recruit@issi.or.kr), Fax(032-580-1120),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404-233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서구문화회관 2층)]
- 8. 제출서류**
 - ① 지원서(사진부착) 1부
 - ② 직무수행 계획서(공단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③ 자기소개서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동의서 1부
 - ※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issi.or.kr) 알림마당, 채용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 ⑤ 최종학력 증명서(학위 등 사본), 경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각 1부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⑥ 그 밖에 적절한 사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9.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화합 및 직원친화, 윤리관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력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가 책임짐.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2-580-1121)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issi.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새얼굴

철학·인문·국제문화학 능통



김도종 원광대학교 12대 총장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신명국)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철학과 김도종(61·사진) 교수를 원광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수는 15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임기 4년의 총장에 선임됐다. 재단은 교육부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23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차기 총장은 원불교 교부로서 1982년 철학과 교수로 임용돼 신문방송사 주간, 인문대학장, 도덕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철학회장, 범한철학회장, 국제문화학회 이사장 등 다양한 대외활동 경력도 갖고 있다.

/권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이천시 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

이천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8월29일부터 9월21일까지 ‘창조, 설레임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설봉공원에서 개최된 ‘제28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보고회는 윤병집 부시장을 비롯해 김문자 시의회부의장 및 시의원, 축제추진 위 및 실무위원, 도예인, 이천시 도예명장, 자원봉사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운영결과보고,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제언보고,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천-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도란도란 가족캠프’ 실시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1박2일간 다문화 10가족 40여명과 함께 ‘2014년 도란도란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서로가 노력하는 부부관계를 만들고, 가족간의 친밀감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고자 개최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부간의 대화예절을 담은 ‘소곤소곤 사랑의 대화법’, 아로마·츄 테라피를 비롯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우리가족 행복배달’ 등 가족간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평-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광주도시관리공사 연탄 전달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최근 동절기 폭설·한파에 대비해 관내 복지소외계층 5세대에 사랑의 연탄 15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 배달은 전역 공사 임·직원의 급여 우수리를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임·직원 및 노조원이 함께 참여했다.

안병균 사장은 “앞으로도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 관내 복지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포커스 단국대학교

세계 곳곳 ‘한국영화 우수성’ 홍보

해외진출 확산 마련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외교사절 역할

단국대학교가 최근 영화 및 CT(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집중 육성하고 나섰다.

단국대는 최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산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영화 서포터즈(KMS, K-Movie Supporters)’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호성 총장, 윤대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병훈 한국영상자료원장 등 주요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단국대는 발대식에서 단국대 외국인 유학생 370여명을 포함한 주한 외국인 유학생 24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421명을 ‘한국영화 서포터즈’로 임명하고 한국영화의 홍보대사 역할 및 국가 간 문화예술 전반의 외교사절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한다.

단국대는 앞으로 ‘한국영화 서포터즈’를 통해 △우수 한국영화(외국어 자막) 관람기회 확대 △한국영화 관련 UC



최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단국대 ‘한국영화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활동단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단국대학교

C제작 및 SNS홍보 △외국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현존하는 최고(最古) 한국영화이자 무성영화인 ‘청춘의 십자로’(1934년, 故 안종화 감독) 변사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김태웅 교수와 배우들이 원작 대본이 소실된 작품을 몇 줄의 줄거리와 당시 기사 등을 바탕으로 직접 대본 전체를 새롭게 창작한 작품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허찬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기업 애로사항’ 귀담아 듣다

평택시장 반도체 생산업체 ‘동우화인켐’ 방문

평택시는 공재광이 평택시장이 포승국가산업단지 위치한 동우화인켐㈜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우화인켐㈜는 반도체·LCD용 Chemical, 편광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1년 설립됐으며 반도체용 고순도 Chemical의 자체 개발에 성공함은 물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하여 매출액이 2조774억원에 이르는 전자재료업체 선두기업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반도체, TFT-LCD의 필수소재인 고순도 Chemical, Etchant, Photo Resist, 칼라필름 및 편광필름의 자체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



는 등 정보전자소재 산업분야의 독보적인 위치에 이른 업체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IT소재분야 선두기업인 동우화인켐㈜가 2013년 서울본사를 평택으로 옮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

학폭 근절사례 공유...학생 선도 소통의 장

광명평 학교별 우수예시 발표 등 간담회 실시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는 24일 소하동에 위치한 주품교회 아트홀에서 광명경찰서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주품교회 담임목사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광명시 관내 11개 중학교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밝고 희망찬 내일로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공·경·해(공감, 경청, 이해) 청소년 간담회와 학교별 학교폭력예방 근절과 예방을 위한 발표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2개월에 걸쳐 중학교 11개교 학생회 임원대상 ‘찾아가는 경찰서장과의 간담회’를 마치면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서로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학교별로 우수사례 및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점을 공유하고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솔선수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광명시 내 우수 댄스동아리 4팀이 참여해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으며 11개 중학교 학생 대표가 각 학교만의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및 향후추진 계획 등 발표를 통한 경쟁을 펼치면서 행사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

소외층에 ‘맛있는 사랑’ 나눔

과천농협 - 고향주부모임 김장 봉사활동

과천농협(조합장 고정수)과 고향주부모임(회장 이웅순)회원 90여 명은 지난 20~21일까지 과천농협 옥사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김치를 담가 홀몸노인가정, 소년 소녀가정, 청소년 합숙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랑의 마음과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웅순 회장은 “이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과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전국문화동호회 축제 문광부장관상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문화커뮤니티로 운영하는 ‘안양가족합창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4 전국생활문화동호회 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족합창단은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100여개 동호회가 출전한 가운데 열린 축제에서 모차르트의 ‘거룩한 성체’ 등 3곡을 불러 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족합창단은 2011년 초등학교생 이상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합창단으로 결성돼 현재 17가족, 58명으로 구성된 시민축제 등 공연에 참여하며 꾸준한 활동을 펴고 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고양시 ‘수상안전교육’ 업무협약

고양시는 고양교육지원청, 고양 원마운트,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및 한국마사회와 최근 ‘Swim to Survive’ 실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체결한 ‘Swim to Survive’ 프로그램은 수상대처 선진국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청소년의 익사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지난 30년 간 호주에서 청소년 수상안전교육에 적용해 약75%가량의 익사예방효과를 거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으로 고양시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Swim to Survive’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타 수상안전교육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고양원마운트 워터파크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입·퇴수 등에 대한 교육이 첫선을 보였다.

/고양-이종훈 기자 jhl@incheonilbo.com



새누리 양주·동두천 당원협 봉사활동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세종) 소속 자원봉사단 및 시민봉사단 50여명은 최근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인 보아스 사랑에 집에서 국악 공연 및 시설물 보수,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양주-강상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



안양만안署 北이탈주민 집수리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는 24일 박달동 북한이탈주민 장모(41.여)씨 집에서 경찰관과 안양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가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낡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벽에 단열재 공사를 벌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이천 포커스 서구문화재단

공연·예술 사회환원 ‘복지 울타리’ 세운다

희망자선 골프대회 수익 차상위층 장학금 기부 내달 14일 소외이웃 돕기 ‘변진섭 콘서트’ 개최

인천 서구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서구에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식을 가진 서구문화재단은 서구의 낙후한 문화·복지 증진사업과 지역 인재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서구문화재단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희망자선 골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거둔 수익금 17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사진>

이순재, 장웅, 김영철, 정혜선 등 스타 연예인 35명과 기업인 및 일반인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골프대회에서 거둔 수익금은 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최근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 42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2014 희망자선골프대회에 이어 서구문화재단은 내달 14일 서구문화회관에서 ‘2014 희망사항 in 인천’이라는 주제의 변진섭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에는 서구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300명을 초청해 좀처럼 콘서트를 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며, 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게스트로 가수 김정민과 김완선이 나온다.

이훈국 서구문화재단 이사장은 “자세 사업 수익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인천 서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내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사업, 소년소녀 가장과 조손가

정 등을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얼어붙어선 안 된다”며 “서구문화재단은 서구의 문화콘텐츠 발전을 통한 서구인 삶의 만족도 증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학기자 chingw@incheonilbo.com



가천대 길병원 쪽방 무료진료 실시

가천대 길병원 가천바람개비 재능기부단은 지난 22일 인천 동구 쪽방상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재능기부단 박국양(흉부외과) 단장을 중심으로 피부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의료진 4명과 간호사, 약사 등 20여 명의 직원들은 이날 하루동안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진료를 실시했다.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던 주민들은 진료교수와 1대1로 통합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약을 처방받았다. 재능기부단의 쪽방 방문은 올해 3월 첫 의료봉사가 시작된 후 세 번째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11월 재능기부단 발대식을 갖고 정기적으로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하나-외환은행 복지시설 행복상자 전달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외환은행은 공동으로 24일 외환은행, 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이 입점한 영종도 사회복지시설 디지털(원장·유택천)을 방문, 행복상자 전달식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 행복상자는 홀몸노인, 결혼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제작한 생필품 상자다.

이번 행사에는 정종식 하나은행 인천영업본부장, 이선환 외환은행 경인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약 30여명의 경인지역 본부 지역 영업점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디지털은 지난 1951년 6월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약 3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남구의회 ‘사랑의 연탄나눔’ 구슬땀

남구의회(의장 장승덕)는 지난 21일 인천 남구 학익동 호미마을에서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태일 부구청장도 참석해 의원 10여명과 함께 어려운 가정에게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의원들은 짬이 날 때마다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경청했다.

/박복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서구 중기경영자협의회 인증산악회

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회장 서동만)는 인천 지역 중소기업 및 자원기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2014년 인증산악회’를 지난 22일 계양산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최광문 인천지방법중소기업청장, 서동만 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장,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의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문학기자 moonhi@incheonilbo.com

인천사랑병원, 유소아 위한 의료지침 通했다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2년연속 1등급

인천사랑병원(병원장 김태완)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75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인천사랑병원이 항생제 처방률 50.00%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54.68%에서 4.68%포인트나 하락한 처방률로 1등급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닌,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일 규모의 종합병원 평균은 72.83%, 동네 병·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요양기관을 모두 포함한 전체 평균은 84.76%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73.87%와 86.10%에 비해 각각 1.04%포인트, 1.60%포인트 감소한 것이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급성중이염은 외래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대한이과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이비인후과학회가 내놓은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에서는 24개월 이내 연령 아이가 급성중이염에 걸려 증세가 심한 경우에만 항생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2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선 해



열제나 물수건 등으로 열을 낮추는 등 일단 나타나는 증상을 먼저 치료하는 대증요법을 적용한 뒤 경과를 봐야 한다. 이는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지침이다. 김태완 병원장은 “인천사랑병원이 개원 이래 변함없이 적정진료를 실천해 온 것이 이번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 선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병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로맨틱 선상파티로 연말모임 즐겨요”

현대유람선, 한달간 패키지 송년회 프로그램

인천대교·아라뱃길 야경관람 등 이벤트 다채

“연말모임 이색 송년회 크루즈에서 한번에 즐겨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되돌아보고, 묵은 화포를 풀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목표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송년회와 연말파티 준비로 11월이 바빠지고 있다.

한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장소선정이 중요한데 연말모임, 이색송년회 장소로 인천과 경인아라뱃길의 크루즈 송년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인아라뱃길과 인천에서 크루즈 유람선을 운영하는 현대유람선에서 ‘ALL-IN-ONE’이라는 주제하에 송년불꽃디너크루즈를 12월 한달동안 매일 오후 5시와 8시 2차례 운영하고 있다.

인천대교와 경인아라뱃길의 야경크루즈여행과 선상공연 관람, 송년행사는 물론 불꽃축제 등 다양한 송년이벤트를 한곳에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형 송년회 프로그램으로 12월에만 약 2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현대크루즈호(1358t, 1040인승, 공연장자가 유람선)이 투입되며, 선상공연장에서 스포츠댄스, K-POP 커버댄스, 변검 등 중국기예와 마술공연, 레이저쇼, 필리핀댄스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통참치카빙 등 35가지로 준비된 특선 뷔페가 제공된다.



로 할 수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약으로 2014별만 송년선상파티 디너크루즈를 운영해 서울, 경기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왕복서울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크루즈는 성인 7만5000원 소인 5만원이며, 평일에는 한강이 있는 김포터미널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주말에는 연안부두에서 인천대교와 송도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운영된다. 예약은 전화(032-882-5555)나 인터넷 홈페이지(www.aracruise.co.kr)를 이용하면 된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인천의료원장 대한공공의학회 공로상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제1회 대한공공의학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승연 원장은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의료의 발전상 정립에 호평을 받아 수상하게 됐다.

인천의료원은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항상 시민 건강 복지 발전을 위한 미래방향을 제시해왔다.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최신 MDCT, MRI 장비 등 대학병원급 장비를 완비했다. 또 전국 최초 조례를 통한 공공보건복지지원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확대와 정책 제언에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연계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도 운영 중에 있어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국가 전염병 및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과 인공신장실, 정신건강의학과를 특화 운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최고 등급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곧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검단축구연합회장기 OB축구대회 성료

제2회 검단축구연합회장기(안용진 회장) OB축구대회가 지난 23일 수도권매립지 주민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이규호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 박광빈 수석부회장, 유준길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이의상 서구의원, 홍순복 전서구의원 등이 참석해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을 맘껏 뽐냈다.

선전의 경쟁으로 치뤄진 이번대회의 우승은 검단축구회, 준우승에는 단봉축구회, 3위는 왕길축구회가 각각 차지했다.

/문학기자 moonhi@incheonilbo.com

신결락 엔터테인먼트, 새문내 테이날 수립병원, 엔터테인먼트

수립공원 웨딩홀·뷔페

예약문의 ☎(032)434-3000 (결혼식, 돌, 백일, 회갑, 각종모임)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환경관련엔지니어링/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산업환경시설 설계·시공 및 관리

세계일류의 수질환경 전문회사가 되었습니다.

☎ (032)566-0010 / http://www.bnlnature.com

www.whallmmd.com

화림국제의료센터

화림요양병원, 화림노인요양원, 한·양방협진병원

입원문의 (032)751-8370, 8373

진로 선택만 부추기는 현실... 일곱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

“직업보다 중요한 건 삶의 방향”

주목할만한 시선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진 채로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아나선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까?!

언젠가부터 학교 현장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의 진로 탐색 강화 정책으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진로와 관련한 각종 강의와 체험학습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진로 강의를 다니다보면 과연 이런 일회성 행사들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는 한다.

30대에 진입해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나 역시 과연 이 길이 내게 맞는 일일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다. 나조차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꿈을 정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신간 <꿈, 지금 꼭 정해야 하나요>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전



<꿈, 지금 꼭 정해야 하나요>
김국태, 김기용, 김진숙, 이수석
이승배, 이정숙, 임병구 지음
팜파스
248쪽, 1만2000원

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위로이자 응원의 메시지이다.

고학년이 될수록,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사실상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 대부분은 공부로 가득차 있다.

그 와중에 숙제처럼 학교에서는 난 무슨 학교에 갈 것인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한다.

국제중과 외고, 명문대가 마치 성공을 위한 당연한 코스처럼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꿈에 대해 폭 넓게 상상하고 경험해야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조차 질문을 던질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인 아이들에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꿈’을 묻고 대답하라

고 하는 것은 어쩌보면 너무도 잔인한 ‘탁상 행정’이다.

학교에서, 집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진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을수록 청소년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뭐라도 찾아서 내 꿈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과 조조함에 시달리고 압박을 받는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곱 선생님들은 이 책에서 ‘진로 선택’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직업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임을 강조한다.

또 저자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꿈과 진학을 접하며 알게 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생생한 조언도 담겨 있다.

마치 숙제를 하듯 진로를 정할 것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에게 일곱 선생님들은 좀 더 꿈을 꿈담게 품을 수 있는 자유와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불안과 고민을 함께 공감해준다.

선생님들은 ‘꿈=직업’이 아니라 꿈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을 살아갈 가장 큰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새 책 한줄읽기

DMZ 도라산에서 제주도까지... 위급함 알리던 햇불·연기

신간 <옛 이동통신 봉수>는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 국가의 위급함을 알리는 통신수단이었던 봉수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그동안 봉수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자들의 학위는 문이나 향토사가들의 연구 성과로만 간간히 발표되었던 터라 이번 출간이 갖는 의의는 크다.

최전방 DMZ의 도라산봉수에서부터 제주도 오소포연대까지.

전국의 봉수대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발로 뛰며 찾아다니 저자는 40여 컷의 사진과 함께 각종 사료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봉수의 어제와 오늘을 소상하게 정리했다.

잊혀져가는 옛 것에 대한 깊은 애정과 뛰어난 통찰



<옛 이동통신 봉수>
최진연 지음
강이
464쪽, 3만3000원

력이 배어나는 이 책에서 저자는 봉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호소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어긋난 문화재 관리 실태를 꼬집고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올바른 고증 및 복원을 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다.

허공에 머무르던 ‘찰나의 순간’ 고이 엮어 詩가 되었네

류인재 시집 <소리의 거처>가 출간됐다.

지난 1998년 <나는 가시연꽃이 그림다>를 출간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올해 2014년 <문학청춘>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인 이정림은 그의 시에 대해 “찰나를 환하게 시로 들어올리고 있다”며 “이런 찰나는 독자에게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은 행복감을 안겨준다”고 평했다.

전체 4부로 구성된 시집은 ‘봄의 아랫도리’, ‘내게도 눈부신 날개가 있다’, ‘강릉 콩나물’, ‘고주박잡’, ‘자루 속의 쥐’, ‘황사’, ‘지우지 못한 전화번호’, ‘울음



<소리의 거처>
류인재 지음
황금알
127쪽, 9000원

과 침묵 사이’, ‘어젯밤 꿈’ 등을 주제로 한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민족마다 다른 의상... 역사·문화 녹아있는 지구촌 이야기

패션을 통해 각국 문화를 배우다!

민속 의상은 그 나라의 민족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한 민족이 살아온 환경, 풍습은 물론 사회문화적 특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신간 <패션, 세계를 만나다>는 세계 곳곳의 나라별, 민족별 전통 의상을 토대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이 각각 어떤 환경에서 형성됐으며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는 이 책은 아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 아시아와 2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3부 유럽, 4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



<패션, 세계를 만나다>
정해영 지음
창비
164쪽, 1만9800원

아로 구성, 풍부한 정보가 화사한 일러스트와 만나 흥미롭게 펼쳐져 있다.

각 부의 첫머리에는 해당 지역 문화권을 아우르는 글과 지도 그림을 수록해 서구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내용이 책 전반부에 배치돼 있다.

“학교를 망친 것은...” 20년 현직교사의 도발적인 저항

신간 <학교라는 괴물>은 대한민국 교육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지역 공립 중학교에서 20년째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인 저자는 책에서 학교를 망친 주변 가운데 하나로 ‘교장 승진 제도’를 꼽는다.

수업보다 승진에 교사들이 매달리게 되기 때문.

또 저자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이나 전교조 활동에 부족한 것은 정책화에 필수적인 현실감각이라면서 남성 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경쟁지상주의와 일등제일주의로 점철된



<학교라는 괴물>
권재원 지음
북멘토
423쪽, 1만6000원

사회적 분위기 속 벼랑 끝에 서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육계에서 저자가 고집스럽게 지켜 온 “실천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욕망이 길들인 동물... 인간을 위협하다

인류 생존 위한 비윤리적 가축사육 실태 고발·바이러스 감염 경고

신간 <탐욕의 울타리>는 거대하고 거침없는 욕망에 놀려 망가진 지구 생명체들에 대한 책이다.

오랜 세월 동안 수렵과 채취에 의존해 먹고 살던 인류가 우연히 동물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이며 생긴 변화에서 시작해, 현재 인간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의 삶, 그리고 똑같이 자신이 만든 울타리에 갇혀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마블링이 환상적인 부드러운 꽃등심, 철판에 지글지글 익여가는 삼겹살, 육즙이 흐르는 고소한 닭다리, 고기 맛을 알아버린 사람이라면 듣기만해도 군침이 고이는 메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리에게서 이미 일상 이 된 먹거리다.

이른바 산업 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저자는 책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해 처참하게 무너진 동물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저



<탐욕의 울타리>
박병상 지음
이상북스
280쪽, 1만5000원

자는 책을 통해 맛있는 살코기를 먹기 위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마저 잃어버린 인간 탐욕의 악랄한 실상을 낱말로 고발한다.

태어나자마자 성장호르몬을 주입해 몸집만 커진 어린 송아지, 솜송아지는 일찍잡지 거세를 당해 육직임이 느껴지고 더 많은 마블링을 위해 도축 직전까지 옥수수사료를 통해 지방을 늘려나간다.

우리가 ‘마블링이 기가막히다’고 극찬하는 꽃등심의 현주소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의 탄생과정도 만만치 않다.

새끼 돼지들은 태어나자마자 위아래 턱의 송곳니 여덟개가 절단되고 꼬리가 잘린다. 태어난지 1주일 만에 인부의 우악스런 손에 작은 고향도 떨어져 나간다. 마취가 먼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윤 관계로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책은 인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가축뿐 아니라 실험실의 생쥐와 돼지, 동물원의 사자, 호랑이, 거실이나 골목 어귀에 어슬렁거리는 개와 고양이까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험에 희생되는 동물들과 불거리를 위해 울타리에 갇힌 동물들의 역사와 실태를 고발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저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이 만든 탐욕의 울타리 안에서 자란 가축들의 바이러스가 이미 울타리를 넘어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 저자의 적나라한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미추홀배 전국장애인바둑대회 전국바둑최강전

2014년 11월 30일
선학체육관(인천시 연수구)
일요일 오전9:30~오후6:00

주최 (사)전국장애인바둑협회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 인천일보 /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 인천광역시 장애인바둑협회

주관 (사)대한바둑협회 / 명지대 바둑학과

후원 인천광역시 / 대한치과의사협회 /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 인천일보 / 아원기우회 / (재)한국기원

협찬 (재)한국기원기사회 / (주)아이젠바둑 / (주)오로바둑 / (주)바둑TV 푸르덴셜생명보험 / 한일바둑 / 문명호 국회의원실 / 정수현 명지대교수 / 도서출판 현현각양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바둑협회
TEL.(032)865-1962 / 868-1962

결국 발목 잡힌 신종훈... 인천시 대리전 선언

정아람·김예림 3관왕 '번쩍'

전국 유소년역도 선수권대회

이슬기 女최우수선수상 수상

국제복싱협회(AIBA)가 결국 인천아시아경기 대회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일보 10월31일·11월 4일 17면·7일 16면> 신종훈이 소속된 인천시는 국제복싱협회의 입장과 달리 신종훈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제복싱협회는 최근 제주도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신종훈의 모든 국내·국제대회 출전을 잠정 금지한다. AIBA프로복싱(APB) 계약 위반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한 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결정 내용을 이메일 공문으로 신종훈에게 보냈다. 앞서 국제복싱협회는 '신종훈이 전국체전에서

국제복싱협회 "출전 정지·징계위 회부" 공문 발송

시 "자세한 설명 들은 후 모든 지원방안 강구할 것"

참가한 것은 국제복싱협회 프로복싱(이하 APB) 경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APB 집행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신종훈에게 전달했었다.

하지만 신종훈측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신종훈이 소속되어 있는 인

천시 역시 신종훈을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신종훈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애초 2012년에 계약을 맺은 뒤 국제복싱협회가 기존 프로복싱 국제단체인 WBC, WBA와 다름을 벌여 2012-2013 시즌, 2013-2014시즌 APB 경기를 뛰지 못하는 등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나"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계약 성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올림픽 출전권 부여 자격이 APB 랭킹 6위까지에서 2위까지로 대폭 축소되는 등 계약 조건이 크게 후퇴했음에도 국제복싱협회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도 신종훈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신종훈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어본 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 국제복싱협회의 조치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정아람(인천 부평디자인과학고)과 김예림(인천 검단고) 제 5회 전국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정아람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여자 69kg급에서 인상 80kg(1위), 용상 93kg(1위), 합계 173kg(1위)을 들어올렸다.

여자 +69kg급의 김예림은 인상 95kg(1위), 용상 120kg(1위), 합계 215kg(1위)를 기록했다.

한편, 앞서 23일 여자 48kg급에서 3관왕을 달성한 이슬기(경기 태광고)는 이날 여자 유소년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강등 떨어진 인천, 그래도 승리에 목마르다

내일 성남과 37라운드 맞대결

잔여경기 전패해도 잔류 유력

5G째 무승...분위기 반전 절실



강등 싸움은 사실상 경남, 성남, 상주의 삼파전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인천 팬들은 '봉길매직'을 염원하고 있다. 최근 약세가 겹친 인천은 승리에 목마르다.

인천은 오는 26일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37라운드에서 FA컵 왕좌에 오른 성남을 상대한다.

인천은 강등경쟁에서 한 발을 뺀 상태다. 이번 성남전과 29일 전남전에 패해도 승점 39를 유지

한다. 29일 치러지는 경남과 상주의 경기에서 경남이 승리해도 경남과 인천은 승점에서 동률을 이룬다. 하지만 골득실에서 인천(-12)이 경남(-20)에 크게 앞서고 있다. 성남과 경남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인천이 모두 패해도 인천은 10위로 떨어질 뿐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인천의 최근 경기력이다. 인천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더욱이 최근 5경기 중 4번이 홈경기였지만 인천은 홈에서 4전 3무 1패를 기록, 승점 3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매각설 등 안좋은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인천의 현 상황에서 인천이 필요한 것은 '승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이 성남에 체력적 우세를 갖고 있다는 것. 인천은 11일간의 휴식기간이 있었다. 성남은 지난 23일 FA컵 결승 이후 3일만에 그라운드로 나선다. 더욱이 FA컵 결승에서

성남은 120분을 모두 쓰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성남과의 상대전적은 인천이 3전 2무 1패로 밀리고 있는 점도 인천의 승리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성남이다. 경남이 상주에 승리한다면 성남은 이번 인천전을 포함 남은 두 경기에서 한 경기만 비겨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할 판이다. 성남은 남은 두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막판 득점왕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13골을 기록 중인 이동국(31경기·전북), 산토스(34경기·수원), 스테보(34경기·전남)의 3파전이다. 산토스와 스테보가 남은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할 경우 득점왕은 그 선수가 차지하지만, 양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동국에게 돌아간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SK 와이번스 '최정 붙잡기' 순항

FA 역대 최고액 경신 가능성도

면담 결과 계약조건 큰 이견 없어

내일 다시 만나 구체적 협상 예상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3루수 최정(27·사진)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척시켰다.

SK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후 최정과 만나 서로 원하는 조건을 교환했다. 서로 원하는 계약 조건을 확인했고 큰 이견은 없었으며 분위기도 좋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최정을 잔류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SK로서는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5년 연속 3할 타율과 4차례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린 최정은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선수다. 나이가 어린 데다 타력, 수비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갖춰기에 어느 팀이든 즉시 전력 보강을 위해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선수다.

일각에서는 최정이 지난해 롯데 강민호가 받은



역대 최고액(4년 75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SK도 '프랜차이즈 스타'인 최정을 반드시 잔류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원 소속 구단과의 협상 첫날인 20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SK는 이날 구체적인 조건을 서로 확인, 계약에 한 걸음 다가섰다.

SK 관계자는 "다음에 다시 만나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헤어졌다"면서 "다음 면담 스케줄을 잡지는 않았으나, 협상 마지막 날인 2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는 이날 구단 소속의 다른 FA 신청 선수인 투수 이재영, 외야수 김강민·조동화, 내야수 나주환 등과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사진제공=SK 와이번스

바둑 '시니어 기왕전' 시작

57명 출전 내달 1일 결승

'시니어 바둑 클래식' 세 번째 대회인 '시니어 기왕전'이 24일 개막했다.

만 50세 이상 프로기사 57명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28일까지 휴식없이 진행해 결승 진출자를 가려낸 후 다음달 1일 단판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강자들의 초반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시니어랭킹 1~4위(조훈현·서봉수·최규병·김일환) 네 명은 시드를 받았다.

'시니어 바둑 클래식'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둑 황제' 조훈현 9단의 부활 여부가 이번 대회의 관심사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혔던 조훈현 9단은 '시니어 바둑 클래식'에서 단 한 차례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며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조훈현 9단은 지난 7월 열린 '시니어 국수전' 4강에서 김일환 9단에게 일격을 당했고, 9월 '시니어 왕위전' 16강에서는 노영하 9단에게 패하며 탈락했다.

여타 기전과 달리 스피디하고 집중도 있는 운영 방식으로 주목 받은 '시니어 바둑 클래식'은 토너먼트 대회 5회와 왕중왕전 1회 등 총 6번 개최된다.

매년 홀수 달 벌어질 '시니어 바둑 클래식'의 토너먼트 제4~5차전 경기는 내달 1월 21일(시니어 국기전), 3월 18일(시니어 기성전) 열릴 예정이며 대망의 왕중왕전은 내달 5월 1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펼쳐진다. 왕중왕전에는 다섯 차례의 토너먼트 대회 성적 상위자 8명이 참가해 8강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각각의 토너먼트 상위 입상자에게는 별도의 점수를 부여해 왕중왕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우승 16점, 준우승 8점, 4강 4점, 8강 2점, 16강 1점 ※점수 동률시 서열 상위자 우선)한다.

현재 누적포인트 순위는 시니어 왕위전 우승을 차지한 서봉수 9단이 20점(시니어국수전 4강 4점 +시니어왕위전우승 16점)으로 1위, 시니어 국수전 우승자인 최규병 9단이 18점(1차우승 16점 + 2차 8강 2점)을 획득하며 2위를 달리고 있고 김일환 9단(10점), 노영하 9단(9점), 조훈현 9단(5점), 조대현 9단, 김종준 7단(이상 4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열린 '시니어 국수전'에서는 최규병 9단이, 9월 열린 '시니어 왕위전'에서는 서봉수 9단이 정상에 오르며 각각 16점씩의 우승 점수를 확보한 바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내가 먼저 잡을거야"

24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4 KB국민은행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 블루밍스와 청주 KB 스타츠의 경기에서 삼성 이미선이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다.

/사진제공=WKBL

'체조 요정' 손연재 윤곽여성체육대상 수상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 손연재(20·연세대)가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최고상인 윤곽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조직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고 손연재에게 최고상인 '윤곽여성체육대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여성 체육 발전을 위해 1988년 자신의 야호를 따 제정한 상이다.

손연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후프 동메달에 이어 개인종합에서 4위에 오른바 있다.

월드컵에서는 11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이 상은 손연재에 앞서 그동안 김연아, 이상화, 기보배 등이 받았다. 손연재는 이

상의 26번째 수상자다.

손연재는 상패와 함께 주어지는 상금 1000만 원을 '사단법인 이르신이 행복한 은빛 세상'에 전액 기부해 독거노인 돌봄에 쓰기로 했다.

한편, 올해 여성체육 지도자상은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주인공인 임오경(43) 서울시청 여자핸드볼 감독에게 돌아갔다.

여자탁구 대표팀의 기대주 양하은(20·대한항공)은 신인상을, 유도, 고가영(12·전주 조춘초), 수영 이근아(12·수원 잠원초), 육상 정서희(14·광양 백운중)는 각각 꿈나무상을 받았다.

올해 신설한 장애인체육상은 인천장애인사이안개미 사이클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도연(42)이 수상했다.

또 지적장애인들에게 체육을 통해 소통과 감동을 전해준 의령사랑의집 여자축구팀은 특별상을 받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잡았을까 놓쳤을까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미국 미식축구리그(NFL) 뉴욕 자이언츠와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서 뉴욕 모델 베컴(13번)이 동료의 패스를 받기 위해 팔을 뻗고 있다. 경기는 뉴욕이 델러스에 28대 31로 석패했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 첫 선

“브라질 자연 압축 표현” 호평

내달 14일까지 명칭 설문조사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마스코트가 2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브라질 최대 방송인 글로브TV의 간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판타스치쿠(Fantastico)를 통해 선보인 올림픽 마스코트는 노란색의 동물,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녹색과 파란색의 식물 형태를 띠었다. 브라질의 자연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라질올림픽위원회는 애초 24일 리우 시에서 열리는 행사를 통해 마스코트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겼다.

올림픽위는 웹사이트 설문조사를 통해 마스코트 이름을 정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12월 14일까지 계속되며 ‘오바와 에바’(Oba e Eba), ‘치바 투키와 에스킨징’(Tiba Tuque e Esquindim), ‘비니시우스와 톰’(Vinicius e Tom) 등 3가지가 후보로 제시됐다.

카를루스 아르투르 누스만 올림픽위원장은 “마스코트는 올림픽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하나”라면서 “전 세계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리우 시내 갈레아온 국제



23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공개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마스코트(왼쪽), 패럴림픽 마스코트. /연합뉴스

공항에서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가 참여한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가 자리를 함께했다.

올림픽위는 리우 올림픽과 관련한 상품 판매액이 10억헤알(약 4325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가운데 25% 정도는 마스코트를 이용

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2016년 올림픽 관련 상품은 70여 가지가 선보일 예정이며, 150여 곳에 매장이 설치된다.

남미 대륙 사상 첫 올림픽인 리우 대회는 2016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된다.

올림픽위는 자원봉사자 7만 명을 선발해 하계 올림픽에 4만5000명, 패럴림픽에 2만50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향땅 밟은 김단비 1라운드 MVP 선정

최근 활약 신한은행 2위 견인

하나외환 강이슬 기량발전상

▼평균 15.4점 9.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 MVP에 선정된 인천 신한은행 김단비. /사진제공=WKBL



김단비(24·인천 신한은행)가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김단비가 가자단 투표에서 96표 가운데 84표를 휩쓸어 1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단비는 1라운드 5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15.4점, 9.2리바운드, 2.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김단비의 활약 속에 신한은행은 4승1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기량발전상(MIP)은 부천 하나외환의 강이슬(20)이 차지했다.

MIP는 심판부, 경기 운영위원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강이슬은 35표 중 12표를 획득했다. 강이슬은 1라운드에서 경기당 7.6점, 2.4리바운드를 올렸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27일 ‘아시아 축구산업 글로벌 전략’ 회의

“2014 천안 국제 스포츠산업 컨퍼런스”가 오는 27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생명자원과학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천안시축구협회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축구산업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발제자로 일본 반포레 고후(Ventfore Kofu FC) 우미노 가즈유키 회장과 중국 려지강 사천대학교 총학장 등이 나서며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비롯, 프로축구연맹, 천안시축구협회, 각 프로축구단 관계자 등을 포함

한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우미노 가즈유키 회장은 12년 연속 독자 구단으로 명성을 얻은 반포레 고후의 운영의 비법을 공개함으로써 구단의 생존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려지강 총학장은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프로축구 산업의 미래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FC서울의 미래전략단장직을 역임했던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한국 프로축구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KBS의 한준희 해설위원의 한중일 아시아 축구산업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마련됐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내달 1일 야구인 골프대회 개최

제 33회 야구인 골프대회가 오는 12월 1일 오전 9시30분 안성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최하고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우승팀인 삼성 라이온즈가 후원한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매년 열려 올해로 33회를 맞았다.

야구인 골프대회에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 코치, 선수 및 프런트, 언론 관계자 등이 참가해 한 시즌을 마무리하며 화합과 우정을 다진다. 전 해에서 동시 티 오프하는 샷건 방식으로 진

행되며, 핸디를 적용해 점수를 내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대회 종료 후에는 성적을 기준으로 우승 및 메달리스트를 선정해 트로피와 상품을 수여한다. 이 밖에도 준우승, 3위, 통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시상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7일 오후 5시까지 KBO 홍보팀(02-3460-4600, 내선 1)으로 해야 한다. 참가비는 그린피와 카트포 포함 15만원(캐디피, 그늘집 본인 부담)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 기념품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스마트로 우리가족을 위한 즐거운 녹화!

국내 유일! 240개 전 채널
녹화되는 헬로tv스마트!

- 예약녹화, 동시녹화 등 더욱 다양해진 녹화기능!
-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TV녹화와 티빙시청을!
- 아이가 보는 화면, 집밖에서 차단하고 메시지 전송까지!
- 채널555번에서 가족사진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감상!

www.cjhellvision.com

“보육대란 막자”…내년 누리과정 수정 예산안 제출

<도교육청>

한여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대회
“지방채 발행은 근본적 해결 안돼
정부차원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 4.53개월 차가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여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5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정부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10.1개월 치 3903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와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등으로 변경한 수정예산안을 정했다.

누리 과정사업비는 어린이집 2140억원, 유치원 1757억 원, e-유치원 사업비 5억 원 등으로 수정됐다.

또 누리과정 사업의 근본적인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상향, 관련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결의에 따라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예산 집행은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한여총 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국가적 보육실천 차원에서 시행한 내년도 누리과정사업비를 ‘0’으로 결정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예산을 보완노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만큼 국가의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

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의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수정 반영했으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사업은 또 다시 파국이 예상된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도 “누리과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국고 지원 문제 등을 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 460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 5670억 원 중 6000여억 원을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원들이 24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정상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철민 기자 narado@incheonilbo.com

농수로서 흥기찢린 여성시신 발견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포천시 한 농수로서에서 흥기에 찢린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쯤 포천시 관인면 한 농수로에 떠오른 여성의 시신을 인근 눈에 물을 대려고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서는 목과 가슴을 30여 차례 흥기로 찢린 상처가 발견됐다.

시신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70~80m 떨어진 민가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외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이 여성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주변 지역에서

탐문 조사하고 있다.

또 외관상 50~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출소 석달도 안돼 또 차량금품 절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건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초 (2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안양시 동안구 한 상가건물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현금 8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절도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9월 만기 출소해 쫓질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송석기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고교 수업료 입학금 내년도 올 수준 동결”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차원에서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은 2009년 이후 7년 연속 동결됐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2.4%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 요구되고 있으나 장기적 경기불황 여파를 감안 2015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도에 올해와 같이 1급지 연액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137만1600원, 방송통신고등학교 8만400원이고, 고등학교 입학금도 1급지 기준으로 1만6100원으로 동결된다.

도교육청은 통상적인 수업료 인상이 3%인 점을 감안할 때, 146억8000만원 정도 학부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무허대부중개 일당

4억대 수수료 ‘꿀꺽’

16명 불구속 입건

구리경찰서는 24일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여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체 대표 강모(33)씨와 실제사장 황모(52)씨, 하부조직원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화상담원 13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4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알선한 대출계약건은 모두 1200여건, 액수로는 8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인 강씨를 내세워 불법영업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장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

김포시청공무원노조 정식 출범

김포시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고 김영선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사무총장 1명, 회계감사 1명 등을 임원으로 내정, 24일 정식 출범했다.

노조는 이달 말까지 조합원 모집과 추가 임원, 대의원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정식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집행부에 단체교섭을 요구기로 했다.

연맹(공노총)에 가입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연대 투쟁할 예정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wwun@incheonilbo.com

‘Wee클래스’ 학생자살 예방 낙제점

“지난해 24명중 18명이 상담 ‘충격’…위기대응 역부족”

도의회, 도교육청 행감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학교복귀와 치료를 돕기는 Wee클래스가 실제 학생들의 위기 관리능력 대응은 낙제점이란 지적을 받았다.

도내 재학중인 학생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010년 26명, 2011년 24명, 2012년 20명, 2013년 24명 등 4년 동안 96명에 달한다. 이중 지난해 24명의 자살 학생 중 18명은 자살하기 전 Wee클래스에 상담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Wee클래스 상담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치백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에서 모두 2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가운데 75%인 18명이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복귀와 치료를 돕는 상담기구인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은 뒤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를 돕기 위해 운영중인 Wee클래스가 학생 자살을 막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따라서 Wee클래스의 현 상담프로그램이 자살예방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운영중인 Wee클래스는 상담사 1명에

학생 3~4명이 대기하고, 심지어 1주일 이상 상담을 위해 대기 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방과후 상담으로 인한 상담시간 집중으로 발생되고 있어 상담인력을 증원에 해결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바우처 인증기관 및 상담센터를 활용해 상담대기를 해소하도록 하고, 상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병선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Wee클래스가 학생자살 예방 등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판교 사고’ 17명 사법처리 방침

경찰 “1~2명은 제외 될수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판례 등 법리검토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꺾이고 끊어진 부재(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한다”며 “부재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포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과수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성남·최현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휴표 휴침대
 SINCE 1992

휴침대와 함께 한 지도 10년이 되어 갑니다.
 사랑할 때, 결혼할 때, 아이 낳고 몸조리까지
 항상 함께 했습니다.
 휴표휴침대, 가족 건강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직매장 (032) 937-2972

**산소와 피톤치드가 나오는
휴표휴침대**

**숲속의 청정한 기운인 피톤치드로
침실에서도 산림욕의 효과를 누리 보세요.**

산소가 나오는 휴표휴침대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와 재질 중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수시켜 상쾌한 잠자리를 만듭니다.

피톤치드가 나오는 휴표휴침대
 35종의 100% 천연 식물 추출물이 공기 중에 피톤치드를 발생시켜 집 안에서도 숲속의 산림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888/010-3284-9181 ■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770/010-4846-1847 ■ 강화본점직매장 032)837-2972/010-2798-2676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504-7770/010-3074-2733 ■ 뉴코아백화점(안산점) 031)8065-1951	■ 현대백화점(중동점) 032)823-2772/010-9113-7028 ■ 인천매장 032)837-1684/011-208-1664
--	--	---

TEL : (032) 887-1664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2동 166-6 | www.inmudmat.co.kr

‘만수동 특수학교 추진’ 탄력 받는다

시교육청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제출...시의회 원안 가결

인천시교육청이 남동구가 부정 의견을 냈던 만수동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시 교육청은 가장 동화학교 신설 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오는 2016년 까지 남동구 만월중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해 공립 특수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동화학교는 만수동 일대 1만2090㎡ 부지에 총 30학급으로 설치된다.

정신지체와 시각·청각 장애, 발달지체, 정서 행동장애 등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만 대상이며 17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해당 학생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근의 특수학교 미추홀학교에서 이전에 올 예정이다.

미추홀학교는 기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이 모두 몰려있었다가 동화학교 설립과 함께 고등학생과 직업반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동화학교 설립을 두고 시

교육청과 인천시 남동구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 7월 시 교육청을 방문해 남동구에 특수학교 추가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동화학교를 그대로 추진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오는 2019년까지 서구와 남구에도 각각 1개씩의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육원초등학교에 공립 단설 유치

원을 지으려던 시 교육청의 계획은 이번 시의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시의회가 단설이 아닌 병설 설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연수구의 여타 사립 유치원들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병설로 지으면 학급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설이어야 유치원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h@incheonilbo.com



“적십자회비모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4일 오후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적십자회비모금을 위해 각 가정에 발송할 홍보물과 지로용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구정살림 계획 수립...‘누군 웃고 누군 울고’

기업지원 늘리고 사회단체 인건비 삭감

남동구 내년 예산안 편성
비즈니스 친화 정책 예고

남동구가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사회단체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한 반면 기업에 지원하는 새 예산을 편성하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예고했다. 기업인 출신인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구정 철학이 이번에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남동구는 25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 일반회계 예비심사에 민간사회단체 인건비를 삭감해 올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체별로 남동제21실천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각 2200만원과 3200만원 등 인건비 전액이 삭감되고, 남동문화원은 3540만원이 줄어든다.

적잖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단체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건비에 이어 사업비마저 깎이면 아예 활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 단체는 민간인이 운영하

는 시민단체로 각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남동문화원은 구내 대표행사인 소래포구 축제를 진행하고, 풍물단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구내 굵직한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구는 예산 삭감에 대해 중앙정부가 떠넘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장 구청장이 강조하던 창조경제와 기업 관련한 사업들이 다

소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구는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와 수출지원원을 통한 기업 클러스터화 사업을 위해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구 관계자는 “민간사회단체의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줄이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들지 못했을 뿐”이라며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자영 기자 ku80@incheonilbo.com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24일 오전 인천 남구의회 앞에서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이날부터 의회에서 열리는 정례회에서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했다.

남지부 관계자는 “현재 남구의 재정

인천연대 남지부 ‘남구 의정비 인상’ 반대 시위

“구의원, 내 배만 불리기식 조례 개정”

자립도는 19.4%로 최하위인데, 의정비(월정수당) 인상률은 12.7%로 최상위”이라며 “이대로 인상된다면 남구 의정비는 3620만원으로 재정 자립도

가 45.6%인 중구(3598만원)보다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의회는 열악한 구 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배만 불리겠다’는 식의 의정비 인

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구 주민을 위한 남구의회인가를 의심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지부는 앞으로 의회가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을 중단하지 않을 시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되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동구 인사외압 의혹’ 비판여론 확산

주민 비대위 성명 ‘공무원 협박·직권남용 고발 검토’

토해졌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새대만노인회 동구지회에 사무국장을 교체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구청장 측근을 채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구청장 측근을 위해 인사 외압을 하는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 공무원 3명은 지난 17일 노인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A교회를 찾아가 “센터장을 내보내면 계약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구는 지난 10월 비대위가 열었던 주민토론회에 사실 이용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시설장을 교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해 직영화한다는 구 취지에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는 25일 오후 동구청 정문 앞에서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 반대,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궤기대회를 연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유병언 최측근 도피생활 마무리

김필배 前 문진미디어 대표 자수 의사 밝혀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서 7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자진 귀국한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2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해 다음 날 오후 5시55분(한국시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바 있다.

7개월 넘게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쫓았지만 체포하지 못했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 전 대표는 검찰의 요청으로 미국이 체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김 전 대표가 검찰에 체포될 경우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유 전 회장의 일가·측근 가운데 유일한 미검자로 남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300여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 전 회장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코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2014 인천연감

인천일보가 매년 발간하는 ‘인천연감’은

현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역사서이자 인천경기 백과사전입니다.

2014년에는 상·하권으로 나눠 인천광역시 / 경기도의 변화를 실었습니다.

지역 각급 기관에서 펼치는 행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를 담아

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했습니다.

인천연감을 펼치면 인천과 경기도의 모든것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연감을 인천 경기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리교장 백과사전입니다

발행 | 인천일보 INCHEONILBO.COM

구입문의 | (032)4520-127



동경 122·42·06 북위 37·32·72 “지금 중국어선 3척이 30분째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요”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다.

칠곡 같은 어둠속에서 RC(본부정)선 통신과 경기운영을 담당한 이병훈(인천요트협회 이사)상황실장이 피식 웃으며 하는말 “중국해적이 팀 해마루를 쫓아간다는데요” 순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비밀은 바로 풀렸다. 중국 산둥반도 해역에서 양식장을 지키던 현지 주민들이 어구와 어장을 망칠까 근처를 지나가는 우리 경기정을 바짝 따라 붙었던 것이다. 그제야 상황실장 웃음의 비밀이 풀렸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14 한·중 황해해양축제 중 하이라이트인 오프쇼어(Off Shore)코스 1구간(인천 왕산마리나-중국 웨이하이)에서 있었던 해프닝이다. 인천 왕산마리나와 중국 웨이하이 구간에서 있었던 횡단레이스에는 해마루, 챔피언, 아이린, 카니발, 필그림 등이 참가했다. 이중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노련함과 패기로 서해바다 횡단에 도전했던 아이린호에 동승해 390km, 38시간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한국, 바레인, 미국, 프랑스 등 다국적팀이 모인 아이린(Irene)호가 공해상에서 북서풍을 받으며 동쪽으로 순항하고 있다.

망망대해 파도를 가르던 38시간... 패기로 내달린 390km ‘리얼 스토리’

‘화합의 돛’ 울리며 힘찬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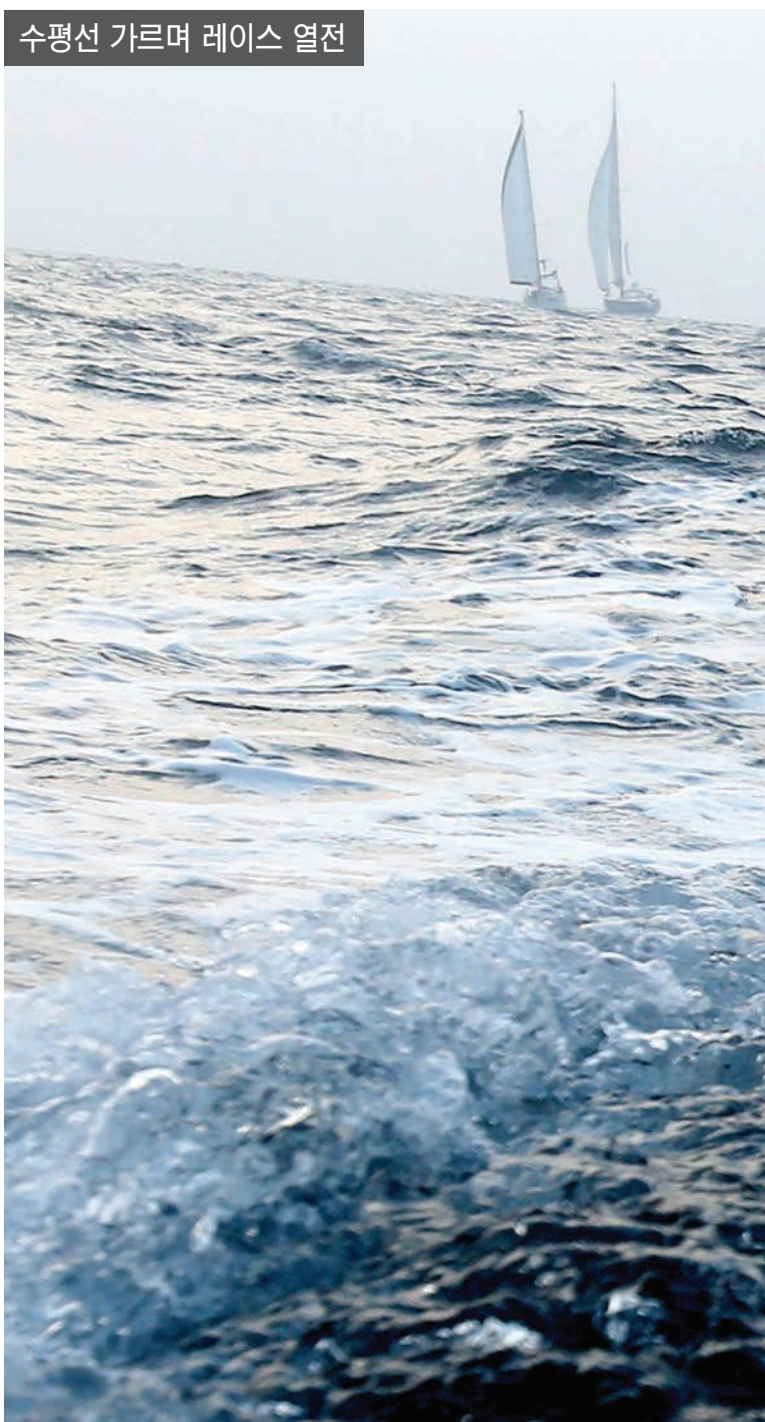
지금 위치는...



잔잔한 파도 틈에 ‘꿀잠’



수평선 가르며 레이스 열전



추위 달래는 라면의 참맛



1	2	3
4	5	6
7		

- 1 중국 웨이하이 마리나 인천일보 스티커 앞에서 아이린호 선수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 2 아이린호의 항법을 도맡은 아지즈(바레인·27)가 공해상에서 휴대용 GPS를 이용해 배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 3 장시간 횡단요트 경기에서는 따로 취침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위험한 꿀잠을 청했다. 맥스(프랑스·22)와 푸이린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다.
- 4 중국 웨이하이 마리나에서 횡단 선수들이 중국측 세관 직원들의 삼엄한 환송(?)을 받으며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 5 공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찢어진 세일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맥스(프랑스·22)가 능숙한 솜씨로 고치고 있다.
- 6 중국 웨이하이를 출발한지 18시간만에 풍랑이 찾아들자 한국의 매운 라면맛을 보고 있는 다국적 선수들.
- 7 스타트게이트에서 출발한 아이린호와 카니발호가 파도를 제치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출국 전 철통 보안



보수작업 내 손으로 ‘똑딱’

